

錢潢의 『傷寒溯源集』에 대한 考察

¹慶熙大學校 一般大學院 基礎韓醫科學科 · ²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安鎮燾^{1, 2} · 丁彰炫² · 白裕相² · 張祐彰² ·

A Study on Qianhuang(錢潢)'s *Shanghansuyuanji*(傷寒溯源集)

Ahn Jin-hee^{1, 2} · Jeong Chang-hyun² · Baik You-sang² · Jang Woo-chang² *

¹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²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form, contents and special features found in Qianhuang's life, books, his relationship with his disciples and *Shanghansuyuanji*'s edition and its pass-ons.

Methods : The best version among *Shanghansuyuanji*'s copies was selected. Based on this, Qianhuang's life, books and his relationship with his disciples were studied, and *Shanghansuyuanji*'s edition and its pass-ons, form and contents were analyzed.

Results & Conclusions: Through study, first I see that Qianhuang was born in the early period of Qing Dynasty and died after the publication of *Shanghansuyuanji*, *Suwen*'s annotation book probably had not been published yet, his mentor were Fangyouzhi and Yujiayan. Second, I see that he organized *Shanghanlun* sentences from his own perspective of cause of a disease and cure method. Third, I see that he viewed the diseases of six meridians with the perspective of yinyang and explained the concept of three yins and three yangs in relation to yinyang's ups and downs, and his Yugyeongjasu theory made possible various interpretations of disease mechanism. Fourth, I see that he held critical views towards the *Shanghanlun* sentences through the Error Discrimination. Fifth, I see that he viewed disease mechanism in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o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chool of Warming and Tonifying through the Meaning of Herbal Formula. Sixth, I see that he sometimes quoted *Neijing* in proper ways that fit the disease mechanism in *Shanghanlun*. On the other hand, he quoted *Neijing* solely for the reason that identical words are used, but some of these were not proper. Additionally, he criticized the aforementioned annotators for improper quoting *Neijing*. Consequentially, for reasons mentioned above Qianhuang's *Shanghansuyuanji* has great importance as a *Shanghanlun* annotation book.

Key Words : *Shanghansuyuanji*, Qianhuang, Three Yins and Three Yangs, Yugyeongjasu Theory, Error Discrimination.

I. 序 論

後漢시대 張仲景이 『傷寒論』을 편찬한 이래로 『傷寒論』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晉唐시기의 原書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단계, 宋金시기의 주석을 붙여 상세히 밝히는 단계, 明清시기의 編次 및 三綱鼎立에 대한 논쟁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 왔는데¹⁾, 이 중 淸나라 때 간행된 『傷寒溯源集』은 編次 및 三綱鼎立과 관련된 『傷寒論』 注釋書로, 총 10권 2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錢潢은 張仲景이 『傷寒論』을 지은 이래로 王叔和의 편차와 成無己의 注釋으로 인하여, 原書의 면모를 잃어 앞뒤가 어그러지고 六經이 뒤섞여 독자들로서 하여금 『傷寒論』을 읽기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서²⁾ 30년 동안 『內經』과 『傷寒論』 등 주요 의서들을 공부하여 1707년에 『傷寒溯源集』을 완성하게 된다.

『傷寒溯源集』에 관한 기존 연구는 몇몇 논문과 단행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으나,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傷寒溯源集』과 관련한 논문은 주로 中國 논문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대체로 『傷寒溯源集』을 중점 주제로 삼은 논문과 부분적인 주제로 다룬 논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傷寒溯源集』을 중점 주제로 삼은 논문은 沈敏南의 「試評『傷寒溯源集』의學術思想³⁾」과 謝忠禮 外 4

인의 「『傷寒溯源集』若干問題探討⁴⁾」가 있었고, 『傷寒溯源集』을 부분 주제로 삼은 논문으로는 萬曉剛의 「傷寒學術發展史略⁵⁾」, 馬俊杰의 「論明清時期虞山醫派⁶⁾」, 黃亞俊의 「吳門醫家學術流派研究⁷⁾」 등이 있었다.

우선 沈敏南의 「試評『傷寒溯源集』的學術思想」에서는 『傷寒溯源集』의 학술사상적 특징을 編次, 註釋, 方解의 측면에서 살폈으나,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였다.

이외에 謝忠禮 外 4인의 「『傷寒溯源集』若干問題探討」에서는 錢潢의 생애, 『傷寒溯源集』의 編制, 版本 및 학술적 성취 방안을 다루었으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쳤고, 심도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하였다.

『傷寒溯源集』을 부분 주제로 삼은 논문은 萬曉剛의 「傷寒學術發展史略」, 馬俊杰의 「論明清時期虞山醫派」, 黃亞俊의 「吳門醫家學術流派研究」가 있었다. 萬曉剛은 方法·因·症·經에 따라 證을 분류한 醫家들을 다룰 적에 錢潢을 以法類證 부분에서 언급했는데, 錢潢이 方有執과 喻嘉言의 학술사상을 계승하였고, 각 經의 病變에 대하여 正治, 變治 두 방면으로 나누어 다루었다고 특징적인 부분만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고, 黃亞俊은 錢潢을 徐大椿, 尤怡와 함께 辨證論治의 각도에서 『傷寒論』을 연구한 傷寒學者로 규정했으나, 내용에 있어서 錢潢의 생애, 저서, 以法類證의 辨證方法을 견지했음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쳐 두 논문 모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馬俊杰은 錢潢이 거주하였던 虞山 지역의 虞山醫派가 張仲景의 사상을 어떻게 전승하고 발전시켰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錢潢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그쳐 연구의 깊이가 깊지 않았다.

* Corresponding Author : Jang Woo-ch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0735, Fax : +82-2-961-9229

Email : jangchang@khu.ac.kr

Received(31 January 2017), Revised(15 February 2017),

Accepted(16 February 2017)

본 연구는 2012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임 (KHU-20120747)

- 1) 陳大舜, 曾勇, 黃政德 編. 孟雄在 外 9人 譯.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p.19-23.
- 2)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534. “自西晉太醫令王叔和編次仲景方論十卷, 附入己意爲三十六卷, 而卒病論六卷早已遺亡, 不復得觀矣. 至宋成無己, 尊奉叔和, 又註爲傷寒論十卷, 今所行於世者, 究僅七卷, 而前後舛錯, 六經混淆, 使讀之者茫無緒端, 檢閱者漫難尋討... 중략...凡此皆叔和編次之失, 無己註釋之病也.”
- 3) 沈敏南. 試評『傷寒溯源集』的學術思想. 中醫雜誌. 1981. 11.

pp.4-6.

- 4) 謝忠禮 外 4人. 『傷寒溯源集』若干問題探討. 中醫學報. 2014. 29(191). pp.501-502.
- 5) 萬曉剛. 傷寒學術發展史略. 廣州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1. pp.1-103.
- 6) 馬俊杰. 論明清時期虞山醫派.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5. 21(11). pp.1356-1358.
- 7) 黃亞俊. 吳門醫家學術流派研究. 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pp.1-64.

마지막으로 의사학 서적이거나 『傷寒論』 연구서 내에서는 錢潢과 『傷寒溯源集』을 辨證論治派 혹은 按因類證·按法類證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었⁸⁾⁹⁾¹⁰⁾¹¹⁾, 사전류 저서인 『中國醫籍大辭典』에서는 『傷寒溯源集』의 구성과 내용상의 특징 및 版本에 대하여 매우 간략하게 다루었다¹²⁾.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錢潢의 『傷寒溯源集』에 대한 연구는 그 숫자가 매우 미미하고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개괄적이어서 매우 간략하였다. 그 이유는 方有執이나 喻嘉言은 논쟁을 일삼아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錢潢은 주로 기존 내용을 정리하는 축에 속하여 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논자는 세부 연구에 앞서서 총론 성격의 개괄 연구를 위하여 錢潢에 대한 인물 소개와 『傷寒溯源集』의 서지학적인 연구 및 구성 형식의 특징을 編制, 病因과 治法에 따른 條文의 분류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내용적 특징을 六經體系와 理論, ‘辨誤’와 ‘方義’, 『黃帝內經』 이론과의 관계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錢潢이 『傷寒論』 註釋家로서 六經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病機를 해석하였으며, 按因類證 혹은 按法類證의 방식으로 『傷寒論』 조문들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辨誤를 통해 앞선 註釋家들의 글을 어떻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方義를 통해 病機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黃帝內經』을 인용하여 『傷寒論』의 病機를 어떻게 근본에서부터 재탐색했는지 등의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傷寒溯源集』의 전반적인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錢潢의 生涯, 著書, 師承關係

- 8) 陳大舜, 曾勇, 黃政德 編. 孟雄在 의 9人 譯.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p.19-23.
- 9)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주민출판사. 2006. p.160.
- 10) 殷哲玟 著. 傷寒溫病學史略.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156.
- 11) 王琦 主編. 傷寒論研究.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88. pp.83-84.
- 12) 中國醫籍大辭典 編纂委員會 編.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113.

錢潢은 淸나라 초기에 활동했던 醫家로 정확한 생몰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는 醫師 집안에서 태어나 一名 虛白¹³⁾이라고도 하였으며, 字는 天來¹⁴⁾이고, 江蘇省 常熟부근인 虞山 지역의 사람이다. 50세 무렵에 갑작스럽게 傷寒을 앓고 痛痺를 계속해서 앓아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계기로 반드시 천 명의 사람을 치료해야겠다는 願을 세웠으나, 소망하는 바가 너무 커서 실현시킬 수 없음을 알고 성현들이 남긴 책의 精微를 밝혀내겠다는 뜻을 세워 晝夜로 열심히 공부하여 『素問』 20篇에 注釋을 달고¹⁵⁾, 『傷寒論』에 注釋을 달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錢潢이 지은 『素問』 注釋書는 남아 있지 않으며, 유일한 저서는 『傷寒論』의 注釋書인 『傷寒溯源集』이다.

이 책의 원래 명칭은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으로, 錢潢은 『傷寒論』이 王叔和의 編次와 成無己의 注釋을 거치면서 仲景의 본뜻을 잃었다고 생각하고¹⁶⁾, 『素問』과 仲景의 책을 날줄과 씨줄로 삼아서 王叔和 이래로 잘못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을 밝혀 분명히 하려 하였다.¹⁷⁾

한편 錢潢이 어떤 분을 스승으로 삼아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남아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傷寒溯源集』의 책 속에서 錢潢이 三綱鼎立說을 기반

- 13) 虛白은 虛室生白의 줄임말로, 虛室生白은 방이 비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환하게 밝아진다는 뜻이며, 출전은 『莊子·內篇·人間世』이다.
- 14) 天來의 유래는 李白의 將進酒에 나오는 글귀 ‘天上來’에서 유래한다. “君不見黃河之水天上來, 奔流到海不復迴, 又不見高堂明鏡悲白髮, 朝如青絲暮成雪, 人生得意須盡歡, 莫使金樽空對月.”
- 15)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535. “但三十年來, 風塵鹿鹿, 舊學荒疏, 因遂發篋陳書, 奮志苦讀, 晝夜揣摩, 寒暑無間. 恐未得經旨, 因注素問廿篇, 然後更發仲景書讀之, 遇隱義未明, 必披羅經傳, 鉤玄索隱, 或沉思默想, 輒攔筆連句.”
- 16)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534. “自西晉太醫令王叔和編次仲景方論十卷, 附入己意爲三十六卷, 而卒病論六卷早已遺亡, 不復得觀矣. 至宋成無己, 尊奉叔和, 又註爲傷寒論十卷. 今所行於世者, 究僅七卷, 而前後舛錯, 六經混淆, 使讀之者茫無緒端, 檢閱者漫難尋討... 竊恐... 凡此皆叔和編次之失, 無己註釋之病也.”
- 17)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p.531-532. “於是素問爲經, 以仲景書爲緯, 自叔和以下, 合者擇之, 謬者摘之, 疑者釋之, 混者晰之.”

으로 注釋書를 만든 方有執과 喻嘉言을 자주 거론하며 이들의 영향을 받아 太陽病篇의 編制를 三綱鼎立을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삼아 『傷寒論』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註釋書를 출간했다고 생각한다. 錢潢의 제자, 즉 門人과 관련해서는 『傷寒溯源集』 각 권의 첫 머리에 訂正을 담당한 門人들의 이름이 나와 있었다. 총 18명¹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들이 스승인 錢潢의 이론을 발전시켜 새롭게 책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2. 『傷寒溯源集』의 版本流傳

錢潢은 30 여 년간 밤낮으로 『內經』과 『傷寒論』 및 『傷寒論』의 주요 注釋書들을 연구하여 마침내 康熙 46年(1707년)에 『傷寒溯源集』을 완성하게 된다. 완성이 되고서 바로 다음 해인 康熙 47年(1708년)에 출판을 하게 되는데, 이를 虛白室初刻本이라고 한다. 그 뒤로 41년이 지난 淸나라 乾隆 14年(1749년)에 虛白室에서 初刻本을 復刻하였고, 일본에서는 享和 3年(1803년)에 虛白室初刻本을 飜刻한 東都臺壽堂刻本(一名 和刻本)¹⁹⁾이 나오게 된다.

그 후 1900년도 중반에 들어서서 上海지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傷寒溯源集』이 출판되었는데, 첫 번째는 1957년에 上海衛生出版社에서 출판된 것으로, 嚴世芸의 『中國醫籍通考』에서는 虛白室初刻本에

근거한 鉛印本이라고 했다.²⁰⁾ 上海衛生出版社本の 出版說明 부분에서는 據上海張耀卿氏家藏原刻本校印이라고 되어 있는데²¹⁾, 張耀卿氏가 집에 소장한 原刻本, 곧 虛白實初刻本에 근거하여 납활자로 찍어낸 것이다.

두 번째는 1959년에 上海科學技術出版社에서 출판된 것으로 이도 또한 鉛印本이나 이 版本이 1957년도에 나온 책을 底本으로 한 책인지 아니면 虛白室初刻本을 근거로 만든 책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총 두 번에 걸쳐서 『傷寒溯源集』이 출판되었는데, 첫 번째는 2002년도에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판한 續修四庫全書 중 子部 醫家類에 포함된 서적으로, 제목은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이고, 이 책 맨 앞부분에 세로로 “據南京圖書館藏清虛白實刻本影印原書版框高一九〇毫米寬二七六毫米”²²⁾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근거해 보았을 때, 南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던 虛白室刻本을 影印한 책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2009년도에 學苑出版社에서 나온 『傷寒溯源集』으로, 이 책은 1957년도에 나온 上海衛生出版社本을 底本으로 하여 標點과 校注를 加하고, 세로쓰기를 가로쓰기로 바꾸었으며 繁體字를 簡體字로 바꾸어 출판한 책으로, 傷寒論注十人書 시리즈의 하나로 기획된 책이다.

上記의 刻本 이외에 初盧氏月樞閣抄本, 乾隆抄本 등이 있다고 전해지나, 이를 직접 구할 수는 없었다.²³⁾ 이번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

18) 18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男格 壽平, 孫葵 玉舒, 曾銘 釋三, 邵恒 久三, 湯煥 彥威, 姪樞 商舟, 謝峻 仁山, 孫爾 鎰 玉萬, 朱良弼 賚子, 程來祉 克昌, 姪又起 文山, 朱亦文 尙玉, 孫日照 臨若, 霍永光 耿文, 姪孫 信孚, 中一, 王璧 無瑕.

19) 이와 관련한 서지학적인 정보는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錢潢의 原著에 일본 사람인 天野俊英子雲이 再訂하였고, 出版地는 京都, 大阪, 江戸였으며, 出版者는 出雲寺文二郎, 林權兵衛, 勝村治右衛門, 小川太左衛門, 河内屋喜兵衛, 松本平助였으며, 크기는 27cm 이고, 匡廓은 左右雙邊이고, 版心을 중심으로 한쪽 면에 적혀있는 본문의 세로 글자수는 10행이고, 글자 사이사이에 구분선이 있는 有界이며, 印記는 三角氏圖書記이고, 언어는 中國語와 日本語이다. (錢潢.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 京都. 1803. [cited 2017 Jan 15] Available from: URL: <https://www.library.pref.osaka.jp/licsxp-opac/WOpacTifTilListToTifTilDetailAction.do?urlNotFlag=1.>)

20)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2. p.487-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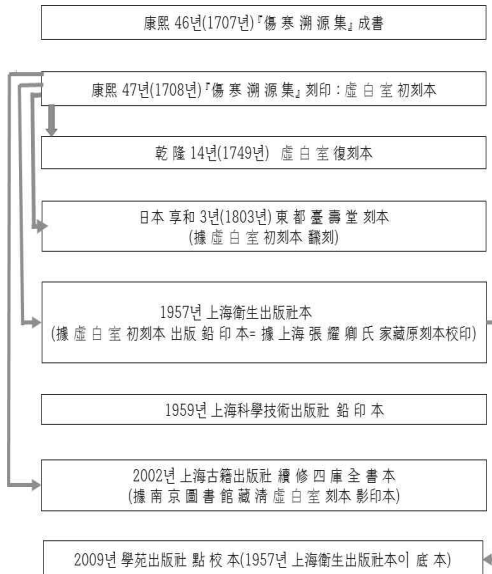
21) 錢潢 著. 傷寒溯源集. 上海. 上海衛生出版社. 1957. p.1.

22) 續修四庫全書本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의 맨 앞부분에 세로로 “據南京圖書館藏清虛白實刻本影印原書版框高一九〇毫米寬二七六毫米”라고 기록되어 있다.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530.)

23) 『傷寒溯源集』의 版本流傳과 관련해서는 2009년 學苑出版社 點校本 중 前言의 版本流傳 부분(p.ii), 2002년 上海古籍出版社 續修四庫全書本の 맨 앞부분(p.530), 1957년 上海衛生出版社本の 出版說明 부분(p.1), 中國醫籍大辭典의 傷寒金匱類 서적內 『傷寒溯源集』 설명 중 版本설명 부분(p.113), 中國醫籍通考의 『傷寒溯源集』 설명 부분 중 現有版本 부분(p.490), 謝忠禮 外 4人의 『傷寒溯源集』若干問題探討 중 版本流傳 부분(p.502)을 참고하여서 정리

출판된 續修四庫全書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Fig. 1. Flow chart of *Shanghansuyuanji* edition



3. 『傷寒溯源集』의 구성 형식의 특징

1) 編制

錢潢은 張仲景이 『傷寒論』을 지은 이래로 王叔和의 編次와 成無己의 注釋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된 점을 비판하면서 『傷寒論』을 질병을 일으키는 原因 및 질병 치료의 正法과 變法에 따라서 목차를 재구성하고 정리하여 『傷寒溯源集』을 펴냈다. 이 책은 총 10卷 22篇으로 『傷寒論』을 편집함에 있어서 仲景의 原文이 아니라고 판단한 「傷寒例」, 「辨脈法」, 「平脈法」, 「諸可與不可」 등은 제외시키고, 六經의 證治와 치료의 正法과 變法의 차이에 입각하여 仲景이 法을 세운 原因을 밝히고, 처방을 만든 의미를 밝혀 내려고 했다.²⁴⁾

卷머리에는 嚴虞惇의 序, 錢潢의 自序, 凡例, 「銖兩升合古今不同辨論」, 「權量考」, 「大斗大雨」, 「三百

하였음을 밝힌다.

24)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p.537-538. “但就三陽三陰六經之證治, 正變之不同, 剖明其立法之因, 闡發其制方之義而已, 共二十二篇, 仍分十卷, 悉依仲景之舊.”

九十七法一百一十三方辨論」, 「動氣臆說」, 「長沙無朱雀湯說」 등 6篇의 論說, 總目이 있고, 권1에는 7조 조문인 “病有發熱惡寒者, 發於陽也. 無熱惡寒者, 發於陰也. 發於陽者, 七日愈, 發於陰者六日愈. 以陽數七, 陰數六也.”를 앞에 내세워 三陽經의 질병은 그 경향성이 發熱을 위주로 나타나고, 三陰經의 질병은 그 경향성이 無熱을 위주로 나타남을 설명하는 「陰陽發病六經統論」과 太陽病의 傷寒과 中風을 아우르는 總脈總證, 太陽病의 쇠퇴와 재발 방지, 太陽病이 나오려는 시기 등을 서술한 「太陽上中下三篇總脈總證」과 三綱鼎立 중 風傷衛의 「中風證治」와 관련된 조문들이 있다. 「中風證治」는 다시 치료의 正變에 따라서 조문들을 배치하였다.

권2에는 三綱鼎立 중 寒傷營의 「傷寒證治」와 관련된 조문들이 있는데, 「傷寒證治」는 다시 치료의 正變에 따라서 조문들을 배치하였다.

三綱鼎立에 의거해 보면 권1에서 風傷衛와 관련된 「中風證治」가 나왔고, 권2에서 寒傷營과 관련된 「傷寒證治」가 나왔으므로, 권3에서는 風寒兩傷營衛와 관련된 「風寒兩傷營衛證治」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錢潢은 「結胸證治」와 「心下痞證治」를 배치한 뒤에 「藏結」을 뒤에 덧붙였다.

Table 1. Comparison of table of contents between Wang Shu-he's old edition *Shanghanlun* and Qianhuang's *Shanghansuyuanji*.

王叔和가 편집한 『傷寒論』의 編制 ²⁵⁾	錢潢이 편찬한 『傷寒溯源集』의 編制 ²⁶⁾
제1권 제1편 辨脈法 제2편 平脈法	嚴虞惇序, 自序, 凡例, 銖兩升合古今不同辨論, 權量考, 大斗大雨, 三百九十七法一百一十三方辨論, 動氣臆說, 長沙無朱雀湯說,, 總目 제1권 陰陽發病六經統論 太陽經綱領 -太陽上中下三篇總脈總證 太陽上篇/中風證治 제1편 中風正治, 太陽壞病, 中風失治, 中風火劫, 中風誤吐, 中風誤汗, 汗下顛倒, 中風誤下, 中風蓄血
제2권 제3편	제2권

<p>傷寒例 제4편 辨瘧濕渴脈證 제5편 辨太陽病脈證并治法上</p>	<p>太陽中篇/傷寒證治 제2편 傷寒正治, 傷寒失治, 傷寒禁汗, 傷寒誤汗, 傷寒誤下, 傷寒蓄血</p>
<p>제3편 제6편 辨太陽病脈證并治法中</p>	<p>제3편 結胸心下痞藏結附 一結胸心下痞發源總論 結胸證治 제3편 心下痞證治 제4편 附藏結 제5편</p>
<p>제4편 제7편 辨太陽病脈證并治法下</p>	<p>제4편 太陽下篇/風寒兩傷營衛證治 제6편 風寒并感證治, 風寒火劫, 心下水氣, 證象陽旦, 邪傳陽明</p>
<p>제5편 제8편 辨陽明病脈證并治法 제9편 辨少陽病脈證并治法</p>	<p>제5편 溫病風溫瘧渴 溫病風溫證治 제7편 傷寒論無發瘧說, 瘧濕渴三證 瘧病證治 제8편 濕病證治 제9편 中陽證治 제10편</p>
<p>제6편 제10편 辨太陰病脈證并治法 제11편 辨少陰病脈證并治法 제12편 辨厥陰病脈證并治法</p>	<p>제6편 陽明篇綱領 陽明受病原始, 陽明上中下三篇綱領, 陽明風寒辨證 陽明上篇/太陽陽明證治 제11편 陽明中風, 中風脾約, 陽明傷寒, 陽明中寒 陽明中篇/正陽陽明證治 제12편 陽明胃實, 陽明發黃, 陽明蓄血 陽明下篇/少陽陽明證治 제13편 少陽陽明</p>
<p>제7편 제13편 辨霍亂病脈證并治法 제14편 辨陰陽差後勞復病脈證 并治法 제15편 辨不可發汗病脈證并治法 제16편 辨可發汗病脈證并治法</p>	<p>제7편 少陽全篇 少陽證治 제14편 少陽正治, 少陽傳陰, 少陽禁例, 少陽壞病, 熱入血室 附合病并病篇 合病并病總論 合病證治 제15편 并病證治 제16편</p>
<p>제8편 제17편 辨發汗後病脈證并治法 제18편 辨不可吐 제19편 辨可吐</p>	<p>제8편 太陰篇 太陰證治 제17편 太陰傷寒, 太陰中風, 太陰誤下 附霍亂篇 霍亂證治 제18편</p>
<p>제9편 제20편 辨不可下病脈證并治法 제21편 辨可下病脈證并治法</p>	<p>제9편 少陰篇 少陰前篇證治 제19편 少陰見證, 少陰禁例, 少陰傷寒,</p>

	<p>少陰寒利 少陰後篇證治 제20편 少陰中風, 少陰誤汗, 少陰咽痛, 少陰熱厥, 少陰熱證, 少陰急下</p>
<p>제10편 제22편 辨發汗吐下後脈證并治法</p>	<p>제10편 厥陰篇 厥陰證治 제21편 厥陰傷寒, 厥陰中風, 厥熱辨論, 除中辨論, 蛔厥辨論, 厥陰熱證, 厥陰寒證, 厥陰誤治, 厥陰熱利, 厥陰寒利, 寒利回陽 差後諸證證治 제22편 陰陽易, 勞復食復, 脾胃虛弱, 差後發熱, 差後水氣, 差後喜唾, 差後虛羸</p>

권4에는 「風寒兩傷營衛證治」가 있다. 錢潢은 太陽病篇의 전체적인 編制를 三綱鼎立에 따라 上中下 세 篇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方有執과 喻嘉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5에는 溫病 및 風溫과 관련된 「溫病風溫證治」와 疫病에서 나타나는 斑疹이 『傷寒論』에는 없다는 「傷寒論無發瘧說」과 瘧濕渴 三證이 傷寒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설명한 「瘧濕渴三證」 등이 있다.

권6에는 「陽明證治」를 배치했는데, 「陽明證治」 앞에는 「陽明篇綱領」을 두어 陽明病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는 조문들을 배치하였다. 「陽明篇綱領」은 陽明病의 발생 경로, 陽明病外證과 太陽病外證과의 차이, 陽明病이 나오려는 시기 등을 서술한 「陽明受病原始」와 『傷寒論』 陽明病篇의 冒頭 조문을 두어 陽明病에 이르게 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경로를 밝힌 「陽明上中下三篇綱領」과 能食과 不能食에 따라 陽明病의 風寒을 구분하는 것을 설명한 「陽明風寒辨證」으로 구성되어 있다. 「陽明篇綱領」 아래에는 上中下篇으로 나누어 각각 「太陽陽明證治」와 「正陽陽明證治」와 「少陽陽明證治」를 두었다. 錢潢이 「陽明證治」에서 陽明病을 「太陽陽明證治」와 「正陽陽明證治」와 「少陽陽明證治」로 크게 나눈 것은 喻嘉言의

25) 陳大舜, 曾勇, 黃政德 編. 孟雄在 외 9人 譯.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p.60-61.

26)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p.556-562.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권7에는 「少陽證治」를 배치했고, 「少陽證治」 뒷 부분에는 「合病并病總論」을 둔 뒤에 三陽經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合病證治」와 「并病證治」를 덧붙였다.

권8에는 「太陰證治」를 배치했고 그 뒤에는 太陰寒邪로 인하여 발생하는 「霍亂證治」를 배치했다.

권9에는 「少陰證治」를 배치했는데, 「少陰證治」는 다시 寒熱에 따라 前篇과 後篇으로 나눴다.

권10은 「厥陰證治」와 「差後諸證證治」를 배치했다.

2) 條文의 분류

(1) 病因에 따른 분류

錢潢은 『傷寒論』의 조문들을 病因이나 治法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凡例에서 “但就三陽三陰六經之證治, 正變之不同, 剖明其立法之因, 闡發其制方之義而已.”라고 하였고, “仲景以外邪之感, 受本難知, 發則可辨, 因發知受.”라고 하여 질병의 原因을 규명하는 것을 중시했다. 예를 들어 太陽 中風에서는 風邪를, 太陽 傷寒에서는 寒邪를, 風寒并感에서는 風寒邪를, 火劫法에서는 火邪를 病因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조문들을 배속시켰다.

錢潢은 王叔和가 편집한 기존 『傷寒論』 조문 중 風邪와 관련된 조문들²⁷⁾을 ‘太陽中風證治’ 내에서 다루었다. 74조는 비록 桂枝湯이 나오지 않고 五苓散이 나오지만, 이 조문에서는 中風 失治의 상황에서 발생한 五苓散證이므로 風邪와 관련된 조문들에 함께 묶어서 분류했다고 생각한다.

錢潢은 王叔和가 편집한 기존 『傷寒論』 조문 중 寒邪와 관련된 조문들²⁸⁾을 ‘太陽傷寒證治’ 내에서 다루었고, 風寒邪와 관련된 조문들²⁹⁾을 ‘風寒兩傷營衛證治’ 내에서 다루었으며, 火邪와 관련된 조문들³⁰⁾을 ‘中風火劫’, ‘風寒火劫’ 내에서 다루었다.

(2) 治法에 따른 분류

錢潢은 『傷寒論』의 조문들을 病因 이외에도 治法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治法에 따른 분류는 正治法과 變法으로 크게 분류하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正治法은 外感 邪氣의 성질에 딱 맞는 치료법을 말하고, 變法은 正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 양상을 다룬 조문들로 이루어지는데, 치료시기를 놓친 失治와 火劫法과 誤吐, 誤汗, 誤下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에 따른 대응 방법과 汗吐下와 溫鍼法을 병행하여 치료했는데도 邪氣가 풀리지 않은 壞病에 따른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太陽病 中風에서는 發熱, 汗出, 惡風, 脈緩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치료하는 正治는 桂枝湯이다. 錢潢은 王叔和가 편집한 기존 『傷寒論』 조문 중 桂枝湯 관련 조문들³¹⁾을 ‘中風正治’라는 범주를 세우고, 이 범주에 이 12개의 조문들을 소속시켰다.

錢潢은 正治法 외에 치료시기를 놓친 조문들을 ‘中風失治’라는 범주를 세우고, 이 범주에 3개의 조문들을 소속시켰는데, 王叔和가 편집한 기존 『傷寒論』 조문 중 94조, 74조, 127조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조문은 두 번째에 나오는 조문이 五苓散證이라서 이와 관련된 五苓散證을 附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錢潢은 火劫法을 이용한 치료와 관련된 조문들³²⁾을 ‘中風火劫’ 범주 내에 소속시켰다. 또한 汗吐下 三法 중 汗法을 잘못 사용한 것과 관련된 조문들³³⁾을 ‘中風誤汗’이라는 범주 내에 소속시켰고, 吐法을 잘못 사용한 것과 관련된 조문들은 ‘中風誤吐’라는 범주 내에 소속시켰는데, 王叔和가 편집한 기존 『傷寒論』 조문 중 120조와 121조가 이에 해당하며, 下法을 잘못 사용한 것과 관련된 조문들³⁴⁾은 ‘中風誤下’라는 범주 내

27) 2조, 12조, 13조, 42조, 95조, 53조, 54조, 24조, 74조, 111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8) 3조, 35조, 51조와 52조, 4조, 5조, 55조, 73조, 126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9) 38조, 39조, 23조, 27조, 25조, 28조, 56조, 57조, 102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0) 116조의 전반부, 115조, 114조, 110조, 111조, 117조, 116조의 후반부, 119조, 112조, 118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1) 2조, 12조, 13조, 42조, 95조, 53조, 54조, 24조, 10조, 19조, 17조, 16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2) 116조의 전반부, 115조, 114조, 110조, 111조, 117조, 116조의 후반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33) 71조, 20조, 82조, 62조, 122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4) 44조, 45조, 15조, 34조, 43조, 18조, 21조와 22조, 140

에 소속시켰다. 그러나, 이 중에서 44조는 실제로 下法을 실행한 것은 아니고, 外證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下法을 시행하면 逆治가 됨을 말한 것으로 ‘中風誤下’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63번 조문에서 外證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번 下法을 쓰는 것이 원래 병증이 中風일 때 적용하는 治法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139번 조문에서 ‘本有寒分’이라고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원래 병증이 中風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王叔和가 편집한 기준 『傷寒論』에서 16조였던 “太陽病三日, 已發汗, 若吐若下若溫針, 仍不解者, 此爲壞病, 桂枝不中與之也. 觀其脈證, 知犯何逆, 隨證治之.” 조문을 ‘太陽壞病’이라는 범주를 세우고, 이 범주에 이 1개의 조문을 소속시켰다.

4. 『傷寒溯源集』의 내용상의 특징

1) 六經體系와 理論에 대한 특징

錢潢은 『傷寒溯源集』을 쓰면서 六經의 전체적인 흐름을 陰陽發病六經統論을 두어 陰陽으로 개괄하였고, 三陰三陽에 대하여 각 六經病의 提綱이나 ‘欲解時’ 부분에서 설명하였으며, 六經自受說을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陰陽發病六經統論

錢潢은 六經篇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陰陽發病六經統論」을 두어 三陰三陽 六經病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괄하였다. 「陰陽發病六經統論」에서는 『傷寒論』 제 7조 조문인 “病有發熱惡寒者, 發於陽也. 無熱惡寒者, 發於陰也. 發於陽, 七日愈, 發於陰, 六日愈, 以陽數七, 陰數六故也.”를 내세우고 이를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오는 “陽勝則身熱, 陰勝則身寒”과 연관시켜 이 조문을 三陰三陽 六經病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괄하는 조문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發於陽을 邪氣가 陽經에 들어가 發하는 것으로 보고, 發於陰을 邪氣가 陰經에 들어가 發하는 것으로 보아 太陽病·陽明病·少陽病의 三陽經病은 發熱惡寒

이 기본적인 증상이 되고, 太陰病·少陰病·厥陰病의 三陰經病은 無熱惡寒이 기본적인 증상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外邪를 감수할 적에는 감수한 邪氣가 본래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고, 發病해야만 변별할 수 있으며, 감수된 邪氣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³⁵⁾ 風傷衛하면 衛陽이 邪氣를 감수하므로 頭項強痛, 發熱惡風汗出의 증상이 나타나고, 寒傷營하면 營陰이 邪氣를 감수하므로 頭項強痛, 發熱惡寒, 無汗體痛嘔逆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邪氣가 陽明에 들어가면 惡寒이 끝나고 身熱汗自出하며 不惡寒而反惡寒하고, 만약 속으로 들어가면 潮熱이 난다고 하였다. 少陽은 三陽의 안쪽과 腸胃臟腑의 마갈 경계면에 처하므로 半表半裏의 위치로 寒熱이 매번 함께 일어나 瘧疾처럼 寒熱往來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총괄하면 三陽經의 發熱은 그 형상이 비록 다르지만 發熱이라는 증상에 있어서는 같다고 하였다.

三陰經의 病證은 四逆惡寒하고, 간혹 反發熱과 反不惡寒과 手足反溫이 있는데, 太陰表證은 無熱이고, 少陰病에서도 원래 無熱이고 背惡寒, 惡寒手足厥冷 등이 나타나며 처음 얻어서 反發熱하는 것은 少陰虛寒의 表證으로 파악하였다. 厥陰病에 있어서는 “熱者必厥, 厥者必熱”하여 厥少熱多하면 병이 물러나는 징조로, 厥多熱少하면 병이 진행되는 징조로 파악하였다. 厥陰病은 無熱해야 마땅한데, 도리어 發熱하는 것은 眞寒假熱이라고 했다.³⁶⁾

(2) 三陰三陽

錢潢은 대체로 六經의 提綱 註釋에서 三陰三陽의 개념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六經 病證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설명하였고, 몇몇의 부위로 드러나는 病證은 經絡의 유주노선을 인용하여 그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첫째, 太陽의 개념에 대해서는 太陽病 提綱 조문과 太陽病欲解時 조문의 註釋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太陽은 盛陽으로 六經의 우두머리가 되어 皮

조, 163조, 139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5)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563. “蓋仲景以外邪之感, 受本難知, 發則可辨, 因發知受, 有陰經陽經之不同, 故分發熱無熱之各異, 以定陽奇陰耦之愈期也.”

36)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p.563-565.

膚와 營衛를 총괄하고, 主外하고, 衛外하며 가장 바깥 층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皮膚에 퍼진 衛氣의 생산동력은 膀胱과 表裏를 이루는 腎의 眞陽이라고 하였다. 또한 足太陽膀胱經 유주노선³⁷⁾을 서술하여 ‘頭痛’³⁸⁾, ‘腰痛骨節疼’³⁹⁾, ‘項背強几几’⁴⁰⁾ 등 足太陽膀胱經이 지나는 부위의 병증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둘째, 陽明의 개념에 대해서는 “問曰: 陽明病外證云何. 答曰: 身熱汗自出, 不惡寒反惡熱也.” 조문과 陽明病欲解時 조문의 註釋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陽明은 兩陽合明이고 盛陽으로 邪氣가 陽에 쏠리면 陽盛하여 熱이 나고, 陽邪가 熾盛하여 不惡寒反惡熱의 病證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두 문장의 註釋에서는 經絡의 유주노선이 따로 보이지 않고, “太陽病, 項背強几几, 反汗出惡風者, 桂枝加葛根湯主之.”의 주석에서 項背強几几 중 几几를 새가 날기 전 목을 움츠리는 형상으로 보고, 얼굴로부터 몸의 전면부를 순행하며 그 支脈이 “下人迎, 循喉嚨, 入缺盆.”하는 足陽明胃經의 流注路線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셋째, 少陽의 개념에 대해서는 少陽病 提綱 조문, 少陽病欲解時 조문의 註釋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少陽은 陽氣가 땅을 뚫고 나와 새싹이 生動하고 좀 더 자라나 陽氣가 草木에 붙어서 初生하는 것으로, 사람 몸에서는 命門에서 나온 三焦가 肝膽에 붙어서 활동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足少陽膽經의 유주노선⁴¹⁾과 是動病⁴²⁾을 인용하여 口苦,

咽乾, 目眩의 병증을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兩脇拘急’⁴³⁾, ‘兩耳無聞’⁴⁴⁾, ‘脇下痛’과 ‘眩冒’⁴⁵⁾, ‘兩耳無所聞’과 ‘目赤’과 ‘胸中滿而煩’⁴⁶⁾, ‘微嘔’⁴⁷⁾, ‘不可轉側’⁴⁸⁾, ‘難以轉側’과 ‘口不仁而面垢’⁴⁹⁾, ‘眩冒’와 ‘時如結胸’과 ‘心下痞硬’⁵⁰⁾을 몸의 측면을 순행하는 足少陽膽經의 流注路線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넷째, 太陰의 개념에 대해서는 太陰病 提綱 조문, 太陰病欲解時 조문의 註釋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太陰은 땅의 純陰을 닮아 盛陰을 體로 삼고, 陽氣를 用으로 삼아 땅이 차면 五穀이 자라나지 않고, 흙이 따뜻하면 만물을 發生하므로, 사람 몸의 太陰脾土도 또한 五藏 가운데에 거처하여 靜順의 體를

至目銳眥後, 下頸入缺盆.”

37)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566. “足太陽之脈, 起於目內眥, 上額交巔, 從巔絡腦, 還出別下項, 連風府, 循肩膊, 內挾脊, 抵腰中, 挾督脈而行.”
38)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567. “太陽病, 頭痛至七日以上自愈者, 以行其經盡故也. 若欲再作經者, 鍼足陽明, 使經不傳則愈.”
39)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608. “太陽病,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疼痛, 惡風無汗而喘者, 麻黃湯主之.”
40)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7. “太陽病, 項背強几几, 反汗出惡風者, 桂枝加葛根湯主之.”
41)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46. “足少陽之脈, 起于目銳眥, 出走耳前,

42)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46. “是動則病口苦, 善太息.”
43)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p.598-599. “太陽病下之, 其脈促不結胸者, 此爲欲解也. 脈浮者, 必結胸也. 脈弦者必咽痛. 脈弦者必兩脇拘急. 脈細數者, 頭痛未止. 脈沉緊者必欲嘔. 脈沉滑者協熱利. 脈浮滑者必下血.”
44)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623. “未持脈時, 病人叉手自冒心, 師因教試令效而不效者, 此必兩耳無聞也. 所以然者, 以重發汗, 虛故如此.”
45)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659. “傷寒吐下後發汗, 虛煩, 脈甚微, 八九日心下痞硬, 脇下痛, 氣上衝咽喉, 眩冒, 經脈動揚者, 久而成痿.”
46)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59. “少陽中風, 兩耳無所聞, 目赤胸中滿而煩者, 不可吐下, 吐下則悸而驚.”
47)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64. “傷寒六七日, 發熱微惡寒, 肢節煩疼, 微嘔, 心下支結, 外證未去者, 柴胡桂枝湯主之.”
48)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65. “傷寒八九日, 下之, 胸滿煩驚, 小便不利, 讖語, 一身盡重, 不可轉側者, 柴胡加龍骨牡蠣湯主之.”
49)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78. “三陽合病, 腹滿身重, 難以轉側, 口不仁而面垢, 讖語遺尿, 發汗則讖語, 下之則額上生汗, 手足逆冷, 若自汗者, 白虎湯主之.”
50)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658. “太陽與少陽並病, 頭項強痛, 或眩冒, 時如結胸, 心下痞硬者, 當刺大椎第一間, 肺俞肝俞, 慎不可發汗, 發汗則讖語, 脈弦, 五六日讖語不止, 當刺期門.”

갖추고, 健運의 用을 둔다고 하였다. 또한 배부위에서 任脈의 옆쪽을 순행하는 足太陰脾經에 邪氣가 들어오면 脾뿐만이 아니라 脾와 表裏 관계를 이루는 胃에도 영향을 미쳐서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등의 병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섯째, 少陰의 개념에 대해서는 少陰病 提綱 조문, 少陰病欲解時 조문, 厥陰病 提綱 조문의 註釋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少陰은 陰中에 陽을 함유한 體로, 寒水안에 潛藏된 陽氣를 潛龍에 비유하기도 하였고, 『周易』의 卦象 중 坎卦와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左에는 膀胱腎水가 屬하고, 右에는 三焦相火가 屬하여 少陰病에서 나타나는 寒熱의 상반된 병증을 설명하였다. 또한 足少陰腎經 유주노선⁵¹⁾을 서술하여 足冷, 嘔效, 咽痛 등의 병증을 설하였다. 이외에도 ‘咽痛’⁵²⁾과 ‘咽喉乾燥’⁵³⁾ 등을 足少陰腎經의 流注路線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厥陰의 개념에 대해서는 厥陰病 提綱 조문, 厥陰病欲解時 조문, 陽明病欲解時 조문의 註釋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厥陰은 至陰이고 兩陰交盡이며, 비록 至陰이지만 少陰의 陽氣가 盛陰 가운데 初生한 것과 비교했을 때 陽氣가 이미 지나서 陰陽이 半半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厥陰病에 나타나는 厥多熱少, 厥少熱多, 發癰膿, 圜膿血 등 寒熱의 錯雜현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足厥陰肝經에 邪氣가 들어가면 陰邪가 아래로부터 상부로 陽을 다그치므로 氣上撞心, 心中疼熱, 消渴, 飢而不欲食, 吐蛔 등의 병증이 나타남을 足厥陰肝經의 流注路線⁵⁴⁾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眩冒’⁵⁵⁾, ‘奔豚氣從少腹上衝心’⁵⁶⁾, ‘其痛必下’와 ‘嘔’⁵⁷⁾, ‘氣上撞心’⁵⁸⁾, ‘乾嘔’⁵⁹⁾, ‘小腹滿’과 ‘按之痛’⁶⁰⁾을 足厥陰肝經의 流注路線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錢潢이 인식하고 있는 三陰三陽을 살펴 보았는데, 錢潢은 三陰三陽의 개념을 陰陽의 盛衰와 연관지어 설명하였고, 몇몇 특정 부위에서 나타나는 병증을 해당 經脈의 유주노선과 연관지어 설명했음을 살필 수 있었다.

(3) 六經自受說

疾病의 傳變은 傳經, 直中, 合病, 併病으로 나뉘고, 傳經은 다시 循經傳, 越經傳, 逆經傳, 表裏傳으로 나뉜다.

이 중 循經傳은 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傳變되는 것이고, 越經傳은 어떤 한 經에서 그와 인접하지 않은 다른 經으로 傳變되는 것이며, 逆經傳은 循經傳과 반대 의

腑, 上踝交出太陰之後, 上膈厥陰, 入毛中, 過陰器, 抵小腹, 挾胃屬肝絡胆, 上貫膈, 布脇肋, 循喉嚨之後, 上入頰頰, 連目系, 上出額, 與督脈會于巔. 其支者, 復從肝貫膈, 上注肺.”

51)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100. “其經起于足掌心之湧泉穴, 出然谷, 循內踝之後, 入跟中, 上踰出膈, 上股內後廉, 貫脊屬腎絡膀胱. 其直者, 從腎上貫肝膈, 入肺中, 循喉嚨, 挾舌本. 其支者, 從肺出絡心, 注胃中.”

52)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p.598-599. “太陽病下之, 其脈促不結胸者, 此爲欲解也. 脈浮者, 必結胸也. 脈緊者必咽痛. 脈弦者必兩脇拘急. 脈細數者, 頭痛未止. 脈沉緊者必欲嘔. 脈沉滑者協熱利. 脈浮滑者必下血.”

53)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615. “咽喉乾燥者, 不可發汗.”

54)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128. “夫足厥陰之脈, 起于足大指, 上循足

55)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658. “太陽與少陽並病, 頭項強痛, 或眩冒, 時如結胸, 心下痞硬者, 當刺大椎第一間, 肺俞肝俞, 慎不可發汗, 發汗則譫語, 脈弦, 五六日譫語不止, 當刺期門.”

56)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585. “燒鍼令其汗, 鍼處被寒, 核起而赤者, 必發奔豚. 氣從少腹上衝心者, 灸其核上一壯, 與桂枝加桂湯, 更加桂二兩.”

57)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100. “血弱氣盡腠理開, 邪氣因入, 與正氣相搏, 結於脇下, 正邪分爭, 往來寒熱, 休作有時, 默默不欲飲食, 臟腑相連, 其痛必下, 邪高痛下, 故使嘔也, 小柴胡湯下之.”

58)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128. “厥陰之爲病,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蚘, 下之利不止.”

59)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138. “乾嘔吐涎沫者, 吳茱萸湯主之.”

60)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139. “病者手足厥冷, 言我不結胸, 小腹痛, 按之痛者, 此冷結在膀胱關元也.”

미로, 厥陰→少陰→太陰→少陽→陽明→太陽의 순서대로 傳變되는 것이고, 表裏傳은 臟과 腑가 서로 表裏 관계에 있는 兩經 사이의 傳變으로 太陽病이 少陰病으로 傳變되거나 少陽病이 厥陰病으로 傳變되는 것이다.⁶¹⁾

直中은 말 그대로 직접 적중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傷寒의 病邪가 三陽經의 傳變을 거치지 않고 직접 三陰經을 침범하여 발병 즉시 三陰經의 증후가 발생하는 것으로 太陰經의 腹滿吐利 증상, 少陰經의 脈沉足冷, 吐利煩躁의 증상, 厥陰經의 嘔吐涎沫, 下利清穀, 囊縮의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것이 그 예이다.

合病은 둘 또는 세 개의 經이 동시에 邪氣를 감수하는 것이고, 併病은 한 經의 病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經의 病證이 발생하여 두 經의 병증이 결과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錢潢은 上記 傳變 유형에 속하지 않는 六經自受說을 주장하였다. 自受는 本經自受, 本經自感, 本經受病이라고도 하였다.

陽明病에서 本經自受의 예는 “陽明病, 能食者爲中風, 不能食者爲中寒.”의 조문과 “問曰: 病有一日得之, 不發熱而惡寒者, 何也. 答曰: 雖得之一日, 惡寒將自罷, 即自汗出而惡熱也.”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前者의 조문 註釋에서 錢潢은 이 조문이 陽明本經이 風寒邪를 感受했을 때의 구별을 논한 조문으로, 太陽에도 經이 있다면 陽明에도 또한 經이 있다고 하면서, 만약 陽明經이 太陽에서 傳來된 것이었다면 “太陽得病時, 汗先出而不徹, 因轉屬陽明. 又曰傷寒發熱無汗, 嘔不能食, 而反汗出漉漉然者, 是轉屬陽明也. 又曰傷寒轉繫陽明者, 其人漉然汗出也.”와 같이 仲景이 분명한 가르침을 두었을 것이라고 했다. 後者의 조문 註釋에서 錢潢은 이 조문이 陽明本經이 自感한 表證으로 太陽經과 少陽經의 表證과 다르며 太陽病을 誤汗, 誤下, 利小便했거나 땀 내는 것이 철저히 못하여 轉屬陽明하는 太陽傳經의 경우와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少陽病에서 本經自受의 예는 “少陽中風, 兩耳無所聞, 目赤胸中滿而煩者, 不可吐下, 吐下則悸而驚.”

의 조문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傷寒論』 註釋家들 중에서 錢潢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注家들은 『傷寒摘錦』을 쓴 萬全, 『傷寒貫珠集』을 쓴 尤怡, 『傷寒辨證集解』를 쓴 黃寶臣 등이 있었고, 『醫宗金鑑』을 쓴 吳謙은 少陽本經이 自受한 것으로 보지 않고, 太陽中風의 邪氣로부터 傳來된 것으로 보았다.

太陰病에서 本經自受의 예는 “太陰之爲病,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若下之, 必胷下結硬.”의 조문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이 조문의 辨誤에서 成無己가 太陰爲病을 陽邪傳裏로 보고 時腹自痛이 나타난다고 한 것에 대하여 “病發于陽, 則發熱惡寒, 病發于陰, 則無熱惡寒邪. 總之邪入陽經, 則發熱而爲陽邪. 邪入陰經, 則無熱而爲陰邪.”를 근거로 틀렸다고 하면서 어찌 太陰에 本經自受의 邪氣가 없겠느냐고 반문하였다.

少陰病에서 本經自受의 예는 “少陰病, 始得之, 反發熱, 脈沉者, 麻黃附子細辛湯主之.” 조문과 “少陰病, 得之一二日, 口中和, 其背惡寒者, 當灸之, 附子湯主之.” 조문과 “少陰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痛小便不利, 四肢沉重疼痛, 自下利者, 此爲有水氣. 其人或欬, 或小便利, 或下利或嘔者, 眞武湯主之.” 조문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麻黃附子細辛湯 조문의 註釋에서 錢潢은 이 條文이 少陰의 表證으로, 陽經에서 傳變되어 온 邪氣가 아니고, 또한 直入中臟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本經自感이라고 하였고, 少陰에서 發하였으므로 無熱惡寒이 나타나야 하는데, 도리어 發熱이 나타나서 反發熱이라고 했다. 기존 『傷寒論』 註釋家들 중에서 萬全도 少陰本經自受風寒證이라고 하였고, 尤怡, 吳謙 등은 少陰의 寒證에 太陽의 表熱이 겸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附子湯 조문의 註釋에서 錢潢은 『素問·熱論』 “一日太陽受之, 二日陽明受之, 三日少陽受之, 四日太陰受之, 五日少陰受之”를 인용하면서 一·二·三·四·五일은 少陰이 病을 받는 시기가 아니고, 그 때가 아닌데 少陰證이 나타나는 것도 또한 本經自受의 病이지 傳經의 邪氣가 아니라고 했다.

끝으로 眞武湯 조문의 註釋에서 錢潢은 ‘二·三·四·五·六·七·八·九·十日’에 대해 少陰本經自感의 邪氣이고, 三陽傳邪

61) 金仁碩, 六經病의 傳變에 관한 文獻의 연구.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p.1-58.

가 아니라고 하였다. 『素問·熱論』을 인용하여 五日
은 少陰이 邪氣를 받는 때이고, 二三日은 邪氣가 오
히려 陽明과 少陽에 있는 때인데, 어떻게 少陰病이
라고 칭할 수가 있고, 또한 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錢潢은 上記 例示와 같이 六經 각각이 他經의 영
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外邪를 感受하여 六經의
서로 다른 表證을 일으킬 수 있다는 ‘六經自受說’을
주장하였다. 다른 주석가들이 傳經으로 해석하는 것
을 本經이 外邪를 직접 감수하여 서로 다른 表證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질병의 病機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錢潢의 엄밀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며, 이는 질병의 病機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太陰之爲病，腹滿而吐，食不下，自利
益甚，時腹自痛，若下之，必胷下結硬.”의 조문은 陽
經에서 傳經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直中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太陰經 本經이 自受한 것으로 볼 수
도 있다고 생각하며, “少陰病，始得之，反發熱，脈沉
者，麻黃附子細辛湯主之.”의 조문은 三陽의 차례를
거치지 않고 병에 걸리자마자 三陰經의 증상이 발현
되는 直中과 다르며, 錢潢의 주장대로 六經自受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 ‘辨誤’와 ‘方義’ 내용의 특징

『傷寒溯源集』의 내용상의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六經體系와 理論에 대한 특징 이외에도 辨誤와 方義
방면을 통해서도 살필 수가 있다. 錢潢은 『傷寒論』
의 조문 중에서 이전 註釋家들의 해석이 미비할 경
우에 그 오류를 들춰내어 ‘辨誤’라는 항목에서 활발
한 토론을 벌였고, 각 處方에 대해 藥物의 구성과
약물의 작용 및 그 기전을 설명하였는데, 이 또한 『
傷寒溯源集』의 내용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辨誤’ 내용의 특징

錢潢은 『傷寒論』의 조문을 證治에 따라 분류하면
서 문제가 될 만한 조문들은 따로 ‘辨誤’라는 부분

을 두어서 先代 注家들의 오류를 조목조목 비판하였
다. 예를 들어 74조 조문인 “中風發熱，六七日不解
而煩，有表裏證。渴欲飲水，水入即吐者，名曰水逆，五
苓散主之.”에 대하여 辨誤를 두어 成無己의 오류를
문제삼았다. 錢潢은 仲景이 發熱이 풀리지 않는 것
을 表證으로 삼고, 煩을 裏證으로 삼아 表裏證이라
고 했는데, 成無己가 이러한 仲景의 뜻을 모르고서
煩을 表邪 때문이라고 여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成無己가 五苓散을 구성하고 있는 方劑
중에서 桂를 桂枝로 보아서 解表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 견해에 대하여 成無己 한 사람의 잘못이
후세 천만인들을 모두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錢潢은 五苓散의 기능은 肉桂로써
그 下焦의 찌서 올리는 陽氣를 도와 津液을 돌이키
고 氣를 축축하게 하여 그 갈증을 다스리고, 水가
거스르는 것을 멈추게 하니, 여전히 表邪가 아직도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서
땀을 내어 낫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錢潢이
濫補學派의 관점에서 病機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예로 62조 조문인 “發汗後，身疼痛，脈沈
遲者，桂枝加芍藥生薑各一兩，人參三兩新加湯主之.”
에 대하여 辨誤를 두어 앞선 註釋家들이 傷寒을 發
汗시킨 뒤에 身疼痛과 脈沈遲의 증상을 寒邪가 아직
다 배출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고 본 것은 오류라
고 비판하였다. 이 증상이 초래된 근본 원인에 대하
여 辨誤 앞의 註釋에서 본래 中風인데 麻黃湯으로
잘못 發汗을 시켜서 陽氣가 虛損되었고, 陰液이 고
갈되어 충분히 滋養할 수가 없는 것 때문이라고
보고, 여기에 나타나는 身疼痛은 傷寒에 脈浮緊하면
서 나타나는 身疼痛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辨誤에서 보통 傷寒에 發汗을 시키면 혹 寒
邪가 미진하더라도 이미 땀을 다 낸 뒤에는 몸이 도
리어 아픈 이치가 없으며, 땀을 낸 뒤에도 몸이 계
속해서 아프다면 脈도 마땅히 浮緊해야 하는데, 어
찌 도리어 沈遲한 脈이 나타나겠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桂枝新加湯은 桂枝湯에 芍藥과 生薑과 人參이
첨가된 桂枝湯의 연속선상에 있는 方劑로 이 조문에서
나타나는 證이 太陽 中風이 분명함을 주장하면서

喻嘉言이 桂枝湯의 옛법이 아니라고 한 견해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이 辨誤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錢潢이 조문을 볼 적에 하나의 증상을 고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황 속에서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예로 桃核承氣湯方의 方義 부분에서 辨誤를 두어 기존의 『傷寒論』 주석가들이 驚狂譫語와 心下悸를 모두 心病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오류가 있다고 보았고, 血蓄膀胱의 說도 常道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仲景의 뜻은 太陽의 經邪가 풀리지 않아 膀胱으로 들어가 瘀熱이 膀胱에 맺히면 下焦에 熱이 있게 되고, 血이 달여져 腸胃로 血熱이 모이게 된다고 하였고, 蓄血이 내려올 적에는 반드시 大便이 나오는 길로 나온다고 했다. 錢潢은 또한 桃核承氣湯은 外證이 풀어지고서 다만 少腹이 急結한 경우에 攻下할 수 있는 方劑로, 桃核承氣湯에 들어가는 약재 중에 桂枝는 마땅히 肉桂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를 桃核承氣湯의 조문에서 ‘外解已’라고 하여 外證이 이미 풀림과 ‘但少腹急結’의 ‘但’이 의미하는 것이 이미 남은 邪氣가 없다는 것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王肯堂이 『傷寒准繩』에서 桃核承氣湯의 證을 완미해보면 桂가 肉桂이지, 桂枝가 아니더라도 단정지어 말한 것에 대하여 千古의 잘못을 교정한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錢潢은 血이 이미 瘀滯되고 쌓여 있으므로 桂의 辛熱로써 도와 영겨 맺힌 것을 유통시켜야 하고, 芒硝와 大黃의 寒性和 桂의 熱性이 상반되어 相輔하는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錢潢이 기존 주가들과 달리 蓄血을 膀胱과 연계시키지 않고, 大腸과 연계시킨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蓄血이 小便로 나오면서 풀릴 것이냐 아니면 大便으로 나오면서 풀릴 것이냐를 현실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桃核承氣湯이 承氣湯을 변형한 처방이라는 것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辨誤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錢潢이 조문한 구절 한 구절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임상 실제와 연결하려 했다는 점이다.

네 번째 예로 26조 조문인 “服桂枝湯，大汗出後，大煩渴不解，脈洪大者，白虎加人參湯主之。”에 대하여 辨誤를 두어 方有執과 喻嘉言이 白虎湯의 효능을 表

裏의 熱을 둘 다 푼다고 註釋을 단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白虎湯은 이미 陽明으로 들어간 裏熱만을 풀 수가 있고, 앞의 조문에서도 이미 表證이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白虎湯을 줄 수가 없다고 한 점을 상기시키려고 했다. 또한 喻嘉言이 앞의 주석에서는 白虎湯이 解熱만 할 수 있고, 解表는 할 수가 없다고 했으면서, 뒤의 주석에서는 白虎湯이 表裏 양쪽의 熱을 모두 풀 수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이러한 오류가 시작된 근원은 成無己가 “表를 조화롭게 하고, 熱을 흩뜨린다.”라고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다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 辨誤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錢潢이 한 註釋家의 글을 단면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전후 맥락을 살펴서 판단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 예로 274조 조문인 “太陰中風，四肢煩疼，陽微陰澀而長者，爲欲愈。”에 대하여 辨誤를 두어 成無己가 이 조문에 대하여 “表邪가 적으면 곧 微하고, 裏가 조화로우면 곧 濇하다.”라고 주석을 하여, 微濇을 나오려는 조짐으로 파악한 것에 대하여 잘못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분명하게 病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注解傷寒論』 원문을 찾아보면 “太陰中風，四肢煩疼者，風淫末疾也。表邪少則微，裏向和則澀而長。長者陽也，陰病見陽脈則生，以陰得陽則解，故云欲愈。”⁶²⁾ 라고 하여, ‘裏向和則澀而長’으로 되어 있지, ‘裏向和則澀’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錢潢이 成無己의 註釋을 斷章取義하여 발생한 비판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또한 喻嘉言이 『尙論』에서 “陽微陰濇을 風邪가 이미 없어져서 부족한 象이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錢潢은 만약 이와 같다면 나오려는 脈이 아니냐고 반박하였고, 方有執이 陰澀을 血凝氣滯로 보고, 長脈을 陽氣가 勝한 脈으로 보아 邪氣가 물러나고 병이 나오려는 징조라고 본 것을 喻嘉言이 “血凝氣滯한데 어찌 도리어 나오려는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반박한 것에 대하여 喻嘉言이 方有執의 주석의 일면

62)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53. “太陰中風，四肢煩疼者，風淫末疾也。表邪少則微，裏向和則澀而長。長者陽也，陰病見陽脈則生，以陰得陽則解，故云欲愈。”

만 보고 인용하여 矯枉過直의 잘못을 저질렀음을 비판하였다.

(2) '方義' 내용의 특징

錢潢은 『傷寒論』의 처방에 대해 그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 약물의 氣味와 작용 및 처방의 뜻과 病機 등을 설명하였는데, 몇 가지 특징적인 方義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大陷胸湯

大陷胸湯은 結胸에 쓰는 처방인데, 錢潢은 이 처방을 해석함에 있어서 結胸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陷胸하여 結胸이 된 것이 마치 적들이 쳐들어와 내 요해처를 점거하고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길목을 끊어 놓고 군량미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며, 뭘나무도 때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면서 이러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용감한 장수와 민첩한 병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苦寒한 성질로 湧泄하는 大黃을 君藥으로 삼고, 鹹寒한 성질로 軟堅하는 芒硝를 佐藥으로 삼으며, 逐水할 수 있는 甘遂를 使藥으로 삼아 鼎足の 형세를 갖춘 뒤에 적진 깊숙이 들어가 함락시키는 공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러한 方義는 일진 方有執이 大陷胸湯의 註釋에서 “然不有勇敢之才, 定亂之武, 不能成二物之功用, 故必大黃之將軍, 爲建此太平之主將.”⁶³⁾라고 註釋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錢潢이 좀 더 이를 발전시켜서 結胸의 병증을 이해할 수 있게 도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② 五苓散

錢潢은 五苓散 처방 註釋에서 五苓散을 구성하고 있는 白朮, 茯苓, 猪苓, 澤瀉, 桂의 氣味와 효능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五苓散의 利小便의 작용이 어떤 기전에 의하여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였으며, 五苓散에 나오는 '桂'가 桂枝인지 肉桂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肉桂'가 확실함을 증명하였다. 다섯 가지 약물 중에서 白朮은 燥濕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土氣를 복돋아 水氣를 제압하는 효능이 있다고 했으나, 바로 뒤에서 李時珍의 “朮除膀胱之濕則氣得周流.”라는 말을 인용하여 앞뒤가 모순되는 상황을 노출시켰다. 白朮이 土氣를 복돋으므로 脾氣가 강화되어 水濕이 저절로 제어된다고 효능을 설명한 것과 李時珍이 “膀胱의 濕을 제거하면 氣가 두루 유행한다.”고 한 것은 白朮 效能의 중점을 각기 달리 하여 설명한 것으로,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또한 利水의 효능을 지닌 茯苓·猪苓·澤瀉가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 설명하였는데, 茯苓과 猪苓은 둘 다 升하면서도 降하여 開腠理하고 利小便하지만, 茯苓만 補藥이고, 猪苓은 補藥에 들어가지 않으며, 澤瀉는 利水하고 泄下하여 脾胃의 濕熱을 없앤다고 하였다. 또한 중요한 것은 利小便의 작용이 단지 下焦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氣味가 輕薄한 약물들이 위로 肺로 가서 하늘이 비를 내려주듯이 肺의 肅降작용이 일어나야 利小便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여 上下氣機升降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利小便의 작용을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錢潢은 方義에서 뿐만이 아니라 “發汗已, 脈浮數, 煩渴者, 五苓散主之.”의 註釋에서 자신이 五苓散의 方義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보고서 『陰陽應象大論』의 이른바 “地氣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天氣가 내려와 비가 되어, 비는 地氣를 내고 구름은 天氣를 낸다.”는 뜻에서 힌트를 얻어 煩渴에 五苓散을 쓰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煩渴이 발생하는 기전은 發汗을 다 시키고 나서 亡陽하게 되고, 下焦의 眞陽이 虛해져 蒸騰하는 기능이 잘 행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地氣가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肉桂를 써서 腎藏의 炁을 올리는 氣를 돕고, 藥性이 비교적 가벼우면서도 淡味를 지닌 四苓을 써서 肺의 하강시키는 功力을 도와 氣化를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上下의 氣液을 모두 通하게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方義에서 五苓散에 나오는 '桂'가 桂枝인지 肉桂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肉桂'가 확실함을 증명하였다. 첫째, 桂枝湯에서는 반드시 '桂枝三兩'이라고 말했고, 五苓散에서는 반드시 '桂去粗皮半兩'이라고 한 점을 들어서 五苓散에

63) 方有執 編著. 陳居偉 校注. 傷寒論條辨.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39-40. “然不有勇敢之才, 定亂之武, 不能成二物之功用, 故必大黃之將軍, 爲建此太平之主將.”

쓰인 ‘桂’는 桂枝가 아니라 肉桂라고 하였다. 만약 분명하게 桂枝였다면 桂枝湯 처방에 써있는 것처럼 桂枝라고 했을 것이지 한 글자인 桂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둘째, 桂枝에 어찌 粗皮가 있겠느냐고 반박하였다. 셋째, 五苓散은 滲泄下洩하는 方劑인데 어찌 도리어 上行하여 發表하는 桂枝를 쓰겠느냐면서 下行하여 補腎할 수 있는 肉桂를 써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다. 이는 錢潢이 溫補學派的인 관점에서 처방을 분석했기 때문에 五苓散의 桂를 肉桂로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小柴胡湯

小柴胡湯은 少陽病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方劑로 錢潢은 溫補學派적인 관점에서 方義를 풀이하였고, 小柴胡湯을 구성하는 개개 약물의 특성 및 논란이 되고 있는 人參의 문제 등을 논의 하였다. 사람 몸의 陽氣가 腎水 가운데 命門으로부터 나와 三陰으로부터 少陽에 도달하는데, 만약 邪氣에 의해 저지당하면 그 氣가 陽明으로부터 太陽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邪氣가 그 經을 침범함에 寒熱이 왕래하고,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고 옆구리 아래가 막혀서 단단하며 혹 구역질이 나거나 혹 갈증이 나는 證이 있고, 肝胆이 邪氣를 받아 입이 쓰고 목구멍이 건조하며 눈이 아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淸氣를 이끌어 淸陽을 腠理로 發散할 수 있는 柴胡를 君藥으로 삼는데, 이 淸氣는 곡식의濁한 氣가 命門 眞陽의 썬짐에 의해 下焦에서 올라간 淸陽한 氣로 膈中에 모여서 호흡을 하고, 피부에 퍼져 衛氣가 되며, 온몸을 운행하여 三焦가 되고, 肝膽에 붙어서 少陽의 風木이 된다고 했다. 黃芩은 柴胡를 보좌해서 열을 제거하고, 人參으로 升發하는 힘을 돕고, 甘草와 大棗의 甘味로 완만하게 하고, 半夏의 辛溫하고 淸利한 성질로 胸膈滿을 없애고, 生薑의 辛味로 發散한다고 하였다. 세속에서 人參을 쓰지 않는 것을 온당하게 여김에 대해 虛實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고, 熱盛하고 邪實하면 人參을 제거할 수 있지만, 正虛할 경우에는 없앨 수가 없다고 하였다.

④ 當歸四逆湯

當歸四逆湯은 厥陰病으로 손발이 厥寒하고, 脈細하여 끊어지려고 하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그 方義에서 錢潢은 當歸四逆湯이 四逆湯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乾薑과 附子和 같은 補陽하는 약물이 들어가지 않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乾薑과 附자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散失되었거나 後人들의 손에 의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四逆湯은 본래 四肢의 厥逆을 치료하는 方劑로 甘草, 乾薑, 附子로 구성되어 있는데, 當歸四逆湯은 四逆湯이라고 命名했음에도 불구하고, 乾薑과 附子和 같은 補陽하는 약물이 들어가지 않음을 의문시하면서 發表하는 桂枝와 溫中散寒하는 乾薑이 같지 않으며, 溫少陰經하는 細辛과 補眞陽하는 附자가 다르다고 하였다. 芍藥은 斂陰하고, 通草는 滲利하는데 어찌 手足厥寒과 脈細欲絶을 치료할 수가 있겠느냐면서 다음 문장인 “만약 그 사람이 안에 오래도록 寒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을 쓴다.”에서 吳茱萸와 生薑만을 보태고, 乾薑과 附子에는 미치지 않았으니, 當歸四逆湯 처방에 이미 乾薑과 附자가 있음을 알겠다고 하였다. 혹자가 四逆散도 四逆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시하자, 四逆散은 熱厥을 다스리는 약이라서 寒厥을 다스리는 當歸四逆湯과 함께 논의할 수가 없다고 하였고, 喻嘉言이 當歸四逆湯은 陰血이 부족한 證으로 當歸와 芍藥을 써서 濟陰하고, 乾薑과 附子를 써서 劫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평소 오래도록 寒이 있는 경우에 吳茱萸와 生薑을 늘린 것을 살펴보건대, 乾薑과 附子は 禁하는 약물일 것이라고 추정한 것에 대하여 부적절한 논의라고 일축하였다. 『傷寒論』조문에서 四逆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方劑는 當歸四逆湯, 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 四逆散 외에도 茯苓四逆湯, 通脈四逆湯, 通脈四逆加猪膽汁湯 등이 있는데, 모두 四逆湯의 方劑를 구성하고 있는 甘草, 乾薑, 附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錢潢의 주장이 억지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牡蠣澤瀉散

牡蠣澤瀉散은 큰 病이 차도를 보인 뒤에 허리 이하에 水氣가 있는 경우에 쓰는 方劑로 方義에서 錢潢이 『素問·水熱穴論』의 “其本在腎，其末在肺，皆積水也.”와 “腎者，胃之關也，關門不利，故聚水而從其類，上下溢于皮膚。故爲附腫，聚水而生病也.”의 문장을 引用하여 水氣가 단지 腎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肺·胃하고도 연관된다고 말하였으나, 실제 牡蠣澤瀉散을 구성하고 있는 藥物의 특징을 설명할 적에는 특별히 肺나 胃와 연관된 부분이 없어서 『素問·水熱穴論』의 인용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들게 했다. 약물 구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牡蠣澤瀉散은 牡蠣, 澤瀉, 栝蒌根, 蜀漆, 苦苧蔕, 商陸根, 海藻로 구성되어 있는데, 牡蠣은 鹹味를 지니고 腎으로 달려가 滲利하는 약물과 함께 써서 水道로 下走하고, 澤瀉는 利水滲濕하며, 栝蒌根은 津液을 운행하여 導腫氣하고, 蜀漆은 驅痰逐水하며, 苦苧蔕은 洩氣導腫하고, 商陸은 苦寒한 성질을 지니 沉降하므로 腫滿과 小便不利를 치료하며, 海藻는 鹹寒하여 潤下洩熱引水하여 邪氣를 小便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方義에 대한 辨誤에서는 喻嘉言이 『尙論』에서 大病後 脾土가 困할 때 그 虛함을 돌아보지 않고서 峻攻하는 牡蠣澤瀉散을 쓰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錢潢은 이 병증이 배가 더부룩하고 그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脾胃가 아직 손상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喻嘉言이 용렬한 의사는 큰 병을 만난 뒤에 溫補를 행하고서 좋다고 여기는데, 이는 거칠고 찢겨 흩어지는 치료법이라고 여긴 것에 대해 錢潢은 五苓散과 腎氣丸 등의 처방이 어찌 거칠고 찢겨 흩어지는 처방이 되겠느냐며 반박하였다.

3) 『黃帝內經』 이론과의 관계

錢潢은 『傷寒溯源集』을 주석함에 있어서 질병의 病機를 설명하기 위해 『內經』을 자주 인용하였다. 自序에서 “是以直溯源流，深窮根柢，推求靈素，辨論陰陽，援古證今，分經辨證.”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傷寒論』의 원류와 뿌리를 밝혀내기 위하여 錢潢이 『靈樞』와 『素問』을 推求하였음을 나타낸다. 또한 嚴虞惇의 序에서도 “於是素問爲經，以仲景書爲緯，

自叔和以下，合者擇之，謬者摘之，疑者釋之，混者晰之.”라고 하여 『素問』을 날실로 하고, 『傷寒論』을 씨실로 하였다고 했다. 다음은 『傷寒論』 조문의 病機에 대한 『內經』 인용의 구체적인 예시문이다.

첫째, 錢潢은 “太陽之爲病，脈浮，頭項強痛而惡寒.”의 주석에서 『素問·上古天真論』, 『靈樞·衛氣行』, 『靈樞·營衛生會篇』, 『素問·生氣通天論』, 『靈樞·經脈』, 『素問·皮部論』, 『素問·玉機眞藏論』 등을 인용하여 病機를 설명하였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腎者主水，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의 구절을 인용하였는데, 이는 太陽寒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다. 寒水는 陰의 성질을 지녔는데, 太陽은 陽이므로 ‘太陽寒水’라는 말은 그 안에 이미 모순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素問·上古天真論』을 인용하였는데, 그 요지는 足太陽膀胱經의 膀胱이 寒水를 주관하고 있다면 이와 表裏를 이루는 腎藏은 五藏六府의 精을 간직하고 있어서 眞陽의 역할을 하여 衛氣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足太陽膀胱經이 몸의 가장 바깥층이 되어 몸의 正氣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靈樞·營衛生會篇』의 ‘太陽主外’와 『素問·生氣通天論』의 “陽者，衛外而爲固也.”를 인용하였다. 또한 太陽病에 頭項強痛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靈樞·經脈』에 나오는 足太陽膀胱經의 유주노선을 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風寒이 침습하여 皮膚와 腠理에 나타난 반응을 설명하기 위하여 『素問·皮部論』과 『素問·玉機眞藏論』을 인용하였는데, 두 문장은 상호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素問·皮部論』에서 인용한 문장은 “邪之始入於皮也，泝然起毫毛，開腠理.”로써 이는 外邪를 感受한 뒤에 腠理가 열려서 汗出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中風의 病機와 부합하는 인용구이고, 『素問·玉機眞藏論』에서 인용한 문장은 “今風寒客於人，使人毫毛畢直，皮膚閉而爲熱，當是之時，可汗而發也.”로써 이는 風寒邪를 感受한 뒤에 皮膚가 닫히고 열이 나는 것으로 傷寒의 病機와 부합하는 인용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太陽之爲病，脈浮，頭項強痛而惡寒.”의 조문을 錢潢이 中風傷寒의 總脈總證이라고 한 것과 부합하는 인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

둘째, 錢潢은 “中風發熱, 六七日不解而煩, 有表裏證, 渴欲飲水, 水入即吐者, 名曰水逆, 五苓散主之.”의 주석에서 煩症의 病機를 설명하기 위해 『靈樞·五亂』의 ‘煩心’이 나오는 “清氣在陰, 濁氣在陽, 營氣順脈, 衛氣逆行, 清濁相干, 亂於胸中, 是爲大惋, 故氣亂於心則煩心.” 문장을 인용했는데, 이러한 인용이 적절한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傷寒論』의 이 조문에서 煩症이 나타난 것은 中風에 일찍 解肌시키지 않아 病邪가 풀리지 않음으로 인한 것인데, 『靈樞·五亂』의 문장에서 나타난 煩心은 清氣와 濁氣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 清濁이 서로 간섭하여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錢潢은 “傷寒發汗, 若吐若下解後, 心下痞鞭, 噫氣不除者, 旋復代赭石湯主之.”의 주석에서 앞선 주석자들이 딸꾹질의 病機를 胃氣上逆으로 보고, 『素問·寶命全形論』을 인용하여 증명한 것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素問·寶命全形論』⁶⁴⁾에 나오는 줄이 장차 끊어지려고 하면 목이 쉰 소리가 나오는 것은 脈이 弦絶하고 급한 경우에는 肝氣가 장차 끊어지려는 것임을 비유한 것이고, 병이 깊어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胃氣가 敗하고 脾가 끊어져 딸꾹질 소리를 낸다고 하면서, 앞선 주석자들이 『傷寒論』 조문의 상황과 맞지 않게 『內經』의 조문을 인용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즉 이 조문의 상황은 邪氣가 이미 풀려 죽지 않는 痞症인데 주석자들이 반드시 죽어서 치료할 수 없는 經文을 인용하여서 『傷寒論』을 증명함으로 인하여 『內經』과 『傷寒論』의 뜻을 모두 잃었다고 하였다. 앞선 주석자들이 『素問·寶命全形論』을 인용하여서 『傷寒論』의 조문을 증명하려고 한 것은 딸꾹질 때문이지만, 이 조문에서 나타난 딸꾹질과 『素問·寶命全形論』에서 나타난 딸꾹질은 그 輕重에 차이가 있으므로 錢潢의

말대로 이를 인용하여 증명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III. 考察

1. 錢潢의 生涯, 著書 및 師承關係

지금까지 錢潢의 生涯, 著書, 師承關係와 『傷寒溯源集』의 版本流傳, 구성 형식과 내용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錢潢의 生涯와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정확한 생몰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몇 가지 단서를 통해 생몰연대를 추정해볼 수 있었다. 그의 대표 저서인 『傷寒溯源集』의 自序 中 『傷寒溯源集』을 저술하게 된 동기를 밝히는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아는 나이(知非之歲)에 傷寒을 앓아 일어나지 못했고, 그 후 몸이 나은 뒤에는 30년 동안 뜻을 일으켜 주야로 공부했다⁶⁵⁾고 한 것으로 보아 傷寒을 앓았던 시기는 대략 中年의 시기이고, 책을 저술한 시기는 晩年の 시기라고 추정할 수 있다. 黃亞俊의 논문에서는 傷寒을 앓은 시기를 少年이라고 하였고⁶⁶⁾, 謝忠禮의 4인의 논문에서는 50세라고 하였고⁶⁷⁾, 學苑出版社 『傷寒溯源集』에서는 中年이라고 하였는데⁶⁸⁾, 知非之歲의 知非는 원출처가 『淮南子』로 『淮南子·原道訓』에서 “거백옥이 나이 50이 되어서 49년 동안의 잘못을 알았다(蘧伯玉年五十而知四十九年非⁶⁹⁾)”고 한 것으로 보아 知非之歲는 50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錢潢이 傷寒을 앓은 50세 이후로 30년 동안 공부를 하여 1707년에 『傷寒溯源

6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7. “黃帝問曰: 天覆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 君王衆庶, 盡欲全形, 形之疾病, 莫知其情, 留淫日深, 著於骨髓, 心私慮之. 余欲鍼除其疾病, 爲之奈何. 岐伯對曰: 夫鹽之味鹹者, 其氣令器津泄. 絃絶者, 其音嘶敗. 木敷者, 其葉發. 病深者, 其聲噦. 人有此三者, 是謂壞府, 毒藥無治, 短鍼無取, 此皆絕皮傷肉, 血氣爭黑.” (素問·寶命全形論)

65)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535. “昔以知非之歲, 忽犯傷寒, 將成不起, 續得痛痺, 幾殞其軀, 既得復蘇, 因念兩世食德, 非立功何以報稱九死重生, 唯活人乃可云酬, 誓必治療千人, 方爲滿愿. 既而思之, 恐願大難盈, 無如闡發先聖精微, 務使流通遠播, 俾業醫者, 臨症可以辨疑, 處方得其精當, 庶可以全天地之大德, 拯生民之危殆. 但三十年來, 風塵鹿鹿, 舊學荒疏, 因遂發篋陳書, 奮志苦讀, 晝夜揣摩, 寒暑無間.”

66) 黃亞俊. 吳門醫學學術流派研究. 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pp.1-64.

67) 謝忠禮 外 4人. 『傷寒溯源集』若干問題探討. 中醫學報. 2014. 29(191). pp.501-502.

68) 錢潢 著. 周憲賓, 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i.

69) 劉安 著. 高誘 注. 淮南子 注(諸子集成 7).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86. p.9.

集』을 완성하고 1708년에 간행했으므로, 錢潢의 생물연대는 淸나라 初期로 대략 1627여년 경에 태어나 1708년 책이 출간된 후에 죽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錢潢은 의학에 뜻을 세운 뒤에 『內經』, 『傷寒論』, 『傷寒論』 注釋書들을 연구하여 『素問』 20篇에 대한 注釋書와 『傷寒溯源集』의 저술을 남겼으나, 이 중 『素問』 20篇에 대한 注釋書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과 편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錢潢이 『傷寒論』에 주석을 가한 형태로 미루어 보았을 때 『素問』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제1편 「上古天真論」에서부터 제20편 「三部九候論」까지 篇名을 설명하고, 전체적인 대의를 설명하고서, 본문 내용에 주석을 가하며, 『傷寒論』과 연관되는 부분에서는 『傷寒論』을 인용하여 『素問』의 이론과 임상 실재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素問』 20篇에 대한 注釋書는 그가 경전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책이었으나, 끝내는 간행이 되지 않아서 남아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凡例에 나와 있는 말 때문이다. 錢潢은 『傷寒溯源集』의 전체적인 편제를 凡例에서 설명했는데, 이 중 맨 뒤에 배치된 陰陽易과 差後諸證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직 注釋을 달지 않은 辨脈法과 이미 注釋을 한 『素問』 다섯 편은 모두 『傷寒論』의 밑바탕이 되므로 이어서 새겨지기를 기다린다.”⁷⁰⁾고 했기 때문이다. 錢潢의 師承關係와 관련하여 錢潢의 스승이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았으나, 三綱鼎立說을 기반으로 注釋書를 만든 方有執과 喻嘉言을 자주 거론하며 이들의 영향을 받아 太陽病篇의 編制를 三綱鼎立을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삼았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傷寒溯源集』의 訂正을 담당했던 18명 門人들의 이름 表記를 통해서는 제자들이 적지 않았음을 추론해 볼 수 있었으나, 제자들의 활동이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었다.

70)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揭書, pp.538-539. “其陰陽易及差後諸復證, 乃病後遺證, 亦在厥陰篇後者, 以六經盡虛故也. 辨脈法未註, 及已註之素問五篇, 皆傷寒論之根柢, 統俟續刻.”

2. 『傷寒溯源集』의 版本

『傷寒溯源集』의 善本을 선택하기 위해 版本流傳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 1957년도에 上海衛生出版社에서 출판된 『傷寒溯源集』은 虛白室初刻本에 근거한 鉛印本으로 세로 쓰기로 되어 있고, ‘免強’을 ‘勉強’으로, ‘黃耆’를 ‘黃耆’로, ‘鉄繡’를 ‘鉄鑄’로, ‘目脈出’을 ‘目脈赤’으로, ‘脈促緊’을 ‘脈沈緊’으로 바꾸는 등 적절한 校勘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惡寒’을 ‘惡汗’으로, ‘麻黃加朮湯’을 ‘麻加朮湯’으로, ‘脾胃受濕’을 ‘脾胃受濕’으로, ‘不從汗下’를 ‘不從汗少’로, ‘可下之脈’을 ‘可小之脈’으로, ‘手少陽三焦’를 ‘手少陰三焦’로, ‘厥多熱少’를 ‘厥多逆少’로 바꾸는 등 矯枉過直의 단점도 노출시켰다. 한편 虛白室刻本을 影印하여 2002년도에 출판된 續修四庫全書本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은 虛白室初刻本을 影印하였으므로, 1708년에 간행된 『傷寒溯源集』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세로 쓰기로 되어 있고, 현대에 잘 쓰이지 않는 ‘讖’, ‘鞭’, ‘藥’, ‘虻’, ‘繇’, ‘攷’, ‘協’, ‘宓’, ‘齧’, ‘蠶’, ‘規’, ‘畱’, ‘模’, ‘穢’, ‘耆’, ‘奕’, ‘昏’, ‘覈’, ‘槩’, ‘碁’, ‘碁’, ‘碁’, ‘驗’ 등의 글자가 可讀性을 떨어뜨리고, ‘罍’, ‘餉’, ‘堦’ 등 僻字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등 단점이 있었다. 끝으로 2009년도에 나온 學苑出版社本 『傷寒溯源集』은 세로 쓰기에서 가로 쓰기로 바꾸고, 書名이나 篇名을 꺾쇠로 표시하여 구분하였으며, 현대에 잘 쓰이지 않는 글자들을 당시 통용되는 글자들로 바꾸어 可讀性을 높이고⁷¹⁾, ‘罍’, ‘餉’, ‘堦’ 등 僻字의 音과 뜻을 註釋을 통해 밝혀 독자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었으나, 校勘을 진행함에 있어서 底本으로 삼은 上海衛生出版社本의 글자를 誤讀⁷²⁾

71) 현대에 잘 쓰이지 않는 ‘讖’, ‘鞭’, ‘藥’, ‘虻’, ‘繇’, ‘攷’, ‘協’, ‘宓’, ‘齧’, ‘蠶’, ‘規’, ‘畱’, ‘模’, ‘穢’, ‘耆’, ‘奕’, ‘昏’, ‘覈’, ‘槩’, ‘碁’, ‘碁’, ‘碁’, ‘驗’ 등을 각각 ‘譜’, ‘硬’, ‘栢’, ‘虻’, ‘繁’, ‘考’, ‘協’, ‘宓’, ‘噉’, ‘蜂’, ‘劫’, ‘留’, ‘模’, ‘眉’, ‘軟’, ‘昏’, ‘核’, ‘概’, ‘棋’, ‘焰’, ‘驗’ 등 당시 통용되는 글자들로 바꾸어 可讀性을 높였다.

72) 예를 들어 『素問』의 篇名인 『寶命全形論』의 ‘形’자가 原文에는 ‘角’자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明나라 顧從德本에 근거하여 바꾼다고 했는데(錢潢 著, 周憲賓, 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129.) 學苑出版社 點校本의 底本인 1957년도 上海衛生出版社本을 확

하는 단점이 있었고, 上海衛生出版社本에서 잘못 校勘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여 잘못을 되풀이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傷寒溯源集』을 읽을 적에는 이러한 판본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서 주의를 기울여 읽는 것이 필요하다.

3. 『傷寒溯源集』의 구성 형식

『傷寒溯源集』의 구성 형식의 특징들을 編制 및 病因과 治法에 따른 조문의 분류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編制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太陽病篇의 編制를 三綱鼎立에 따라 구성했다면 風傷衛의 「中風證治」, 寒傷營의 「傷寒證治」 다음에 風寒兩傷營衛의 「風寒兩傷營衛證治」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錢潢은 「結胸證治」와 「心下痞證治」를 배치한 뒤에 「藏結」을 뒤에 덧붙였다. 이는 中風을 다룬 太陽病 上篇과 傷寒을 다룬 太陽病 中篇의 뒤에 「結胸證治」와 「心下痞證治」를 뒹으로써 風寒邪에 두 證이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에 대하여 「凡例」에서 錢潢은 結胸이 陽邪가 陷入되어 이르게 된 병증이고, 痞證이 陰邪가 陷入되어 이르게 된 병증이라는 기존 주석가들의 생각을 천 년의 오류로 규정하면서, 中風에도 心下痞가 발생할 수 있고, 傷寒에도 結胸이 있으며, 다시 中風傷寒이 함께 나타나는데 단지 心下痞만 있는 경우가 있고, 다만 傷寒이 있는데 心下가 그득하고 단단하며 아픈 경우는 結胸이 되고, 다만 그득하기만 하고 아프지 않은 경우는 痞가 된다고 하였다. 錢潢은 또한 「少陽證治」 뒷부분에는 「合病并病總論」을 둔 뒤에 三陽經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合病證治」와 「并病證治」를 덧붙였다. 「凡例」에서 錢潢은 “柴胡湯證이 응당 少陽病篇에 있어야 하는데, 모두 太陽病篇에 잘못 들어가 經絡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고, 篇의 차례가 어지럽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太陽病篇에 들어가 있는 少陽病과 관련된 조문들을 「少陽證治」에 배치하였다. 또한 少陽病의 主方인 小柴胡湯 뿐만이 아니라 小柴胡湯의 變法인 柴胡桂枝湯, 柴胡桂枝乾薑湯, 柴胡芒硝湯, 柴胡加龍骨牡蠣湯 등을 「少陽證治」에서

함께 다루어 少陽病의 主證 및 變證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읽는 이들로 하여금 쉽게 찾아 탐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少陽證治」의 뒤에는 「合病并病篇」을 덧붙여서 太陽陽明合病 및 三陽의 合病, 太陽少陽并病 및 二陽并病을 다루어 太陽, 陽明, 少陽이 서로 합하거나 并하여 일어나는 병의 다양한 변화들을 다하여 三陽의 證治를 마쳤다. 권8에는 「太陰證治」를 배치하였고, 그 뒤에는 太陰寒邪로 인하여 발생하는 「霍亂證治」를 배치했다. 원래 舊本 『傷寒論』에서는 霍亂과 관련한 病證을 「辨霍亂病脈證并治」라는 이름을 두어 「辨厥陰病脈證并治」 바로 뒤에서 다루었으나, 錢潢은 霍亂의 病證이 太陰의 病證과 마찬가지로 太陰寒邪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병의 原因이 서로 밀접하다는 측면에서 「太陰證治」 뒤에 두었다. 권9에는 「少陰證治」를 배치했는데, 「少陰證治」는 다시 寒熱에 따라 前篇과 後篇으로 나뉘었다. 「凡例」에서 錢潢은 少陰이 坎의 속성이 있어서 陰臟이지만, 眞陽이 寒水 가운데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陽氣를 중시하고 있으며, 陽邪가 치성하여 眞陰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喻嘉言이 少陰篇을 寒熱에 따라 나눈 방법을 따라서 前後篇으로 나누어 陰陽의 변별을 쉽게 하였다. 권10에는 「厥陰證治」를 배치했는데, 「凡例」에서 錢潢은 厥陰의 한 經은 陰氣가 이미 다하게 되어 오히려 天地의 陽氣가 이미 자라나 땅위로 나오려고 하는 것과 같아 陰陽이 서로 반반씩인 까닭에 厥陰이 번갈아 나타나 篇을 나누기가 어렵다고 설명하였고, 이를 따라 「厥陰證治」는 「少陰證治」처럼 前後篇으로 나누지 아니하였다.

錢潢은 張仲景이 『傷寒論』을 지은 이래로 王叔和와 成無己의 실수를 교정하기 위하여 『傷寒論』을 질병을 일으키는 原因 및 질병 치료의 正法과 變法에 따라서 목차를 재구성하여 정리하고 注釋을 가하였다. 錢潢은 三綱鼎立을 기반으로 목차를 구성한 方有執과 喻嘉言의 영향을 받아 太陽病篇을 風邪·寒邪·風寒邪를 원인으로 하는 中風, 傷寒, 風寒兩傷營衛證治에 따라 분류하고, 나머지 篇은 少陽病篇을 제외하고 中風과 傷寒을 중심으로 조문들을 분류하면서도 中風과 傷寒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조문들은

인해본 결과 '形'으로 되어 있었다(錢潢 著. 傷寒溯源集. 上海. 上海衛生出版社. 1957. p.108.).

治法の 正法과 誤治·失治 등의 變法을 중심으로 조문들을 분류했다. 病因에 따른 조문의 분류 방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이면에 숨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風邪, 火邪 등의 陽邪와 寒邪인 陰邪와 風寒이 겹친 風寒邪로 나누어 審證求因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치료에 따른 조문의 분류 방식은 일정한 조리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傷寒論』 조문들에 나름대로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분류 방식이 六經證治 모두에 적용된 것은 아니며, 각 經의 상황에 따라서 조문을 분류하는 방식이 조금씩 미묘하게 바뀌어 나갔다. 결국 錢潢은 『傷寒論』을 정리함에 있어서 方有執과 喻嘉言을 따른 측면이 있지만, 독자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原因에 따라서 때로는 治法에 따라서 조문들을 분류했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조문들을 분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 『傷寒溯源集』의 내용

『傷寒溯源集』의 내용상의 특징들을 六經體系와 理論에 대한 특징, ‘辨誤’와 ‘方義’ 내용의 특징, 『黃帝內經』 이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六經體系와 理論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錢潢은 우선 『傷寒論』의 전체적인 흐름을 陰陽으로 나누어 파악했는데, 六經篇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傷寒論』 제 7조 조문인 “病有發熱惡寒者, 發於陽也. 無熱惡寒者, 發於陰也. 發於陽, 七日愈, 發於陰, 六日愈, 以陽數七, 陰數六故也.”를 내세우고, 이를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오는 “陽勝則身熱, 陰勝則身寒”과 연관시켜 이 조문을 三陰三陽 六經病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괄하는 조문으로 파악한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錢潢은 成無己가 發熱惡寒한 것을 寒傷陽으로 여기고, 無熱惡寒한 것을 寒傷陰으로 여기는 관점에 대하여 仲景의 울타리를 엿보지 못한 것이라고 여겼고, 喻嘉言이 方有執의 관점을 따라 發於陽을 風邪가 衛를 傷한 것으로 여기고, 發於陰을 寒邪가 營을 傷한 것으로 여긴 것에 대하여 이 관점이 다만 太陽經에만 적용된다면 可한 해석이지만, 六經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면 큰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發於陽, 七日愈, 發於陰, 六日愈.”에 대해서는

이치상 그러할 뿐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錢潢이 發於陽을 邪氣가 陽經에 들어가 發하는 것으로 보고, 發於陰을 邪氣가 陰經에 들어가 發하는 것으로 본 것은 三陽經病은 發熱惡寒이 기본적인 증상이 되고, 三陰經病은 無熱惡寒이 기본적인 증상이 된다는 의미이며, 이 기본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 즉 陽明經에서 發熱惡寒이 아니라 不惡寒而反發熱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는 仲景이 ‘反’을 붙인 것에 주목했으며, 陰經에서 간혹 反發熱, 反不惡寒, 手足反溫이 나타나는 것은 常이 아닌 變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錢潢의 관점은 나름대로 六經病의 흐름을 짚어내어 『傷寒論』 제 7조 조문에 의미부여를 하여 부각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錢潢은 주로 六經의 提綱 註釋이나 欲解時가 나오는 조문의 註釋에서 三陰三陽의 개념을 논의하였는데, 太陽은 盛陽으로 皮膚와 營衛를 총괄하고 主外하여 脈浮, 惡寒의 증상이 나타나며, 陽明은 兩陽合明한 盛陽으로 身熱, 不惡寒反惡熱이 나타나며, 少陽은 陽氣가 땅을 뚫고 나와 세력이 生動하는 象이라고 하였으나, 口苦咽乾目眩의 少陽病 提綱을 설명함에 있어서 少陽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足少陽膽經의 유주노선을 인용하여 연관성을 설명했다. 太陰은 盛陰을 體로 삼고 陽氣를 用으로 삼아 食不下, 腹滿而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少陰은 陰中에 陽을 함유한 體이므로 병증이 때로는 寒의 양상으로 때로는 熱의 양상으로 나타남을 설명했으며, 厥陰은 兩陰交盡한 至陰으로 少陰의 陽氣가 盛陰 가운데 初生한 것과 비교했을 때 陽氣가 이미 자라나서 陰陽이 半半이라고 하면서 厥多熱少, 厥少熱多 등 寒熱錯雜의 증상을 설명하였다.

錢潢은 한편 六經 각각이 外邪를 감수하여 六經의 서로 다른 表證을 일으킬 수 있다는 六經自受說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錢潢의 독특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주석가들이 傳經이나 表裏傳으로 해석하는 것을 本經이 外邪를 직접 감수하여 서로 다른 表證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질병의 病機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辨誤’와 ‘方義’ 내용의 특징을 통해서도 『傷寒溯

源集』의 내용상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錢潢이 『傷寒論』의 조문을 證治에 따라 분류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조문들은 따로 辨誤라는 부분을 두어서 先代 注家들의 오류를 조목조목 비판한 예시문들을 통하여 錢潢이 『傷寒論』 조문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고, 고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황 속에서 파악하려고 했으며, 한 구절 한 구절을 매우 세심하게 파악하여 임상 실제와 연결하려고 했고, 註釋家들의 글을 볼 때 단면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前後의 脈絡을 살펴서 판단하려고 한 점을 알 수 있었다. 몇 가지 특징적인 方義들을 통해서는 錢潢이 처방을 해석함에 있어서 질병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利水작용을 단지 下焦와만 연관시키는 1차원적인 病機 분석이 아닌 上焦와의 연계성 속에서 생각했는데, 이는 上下氣機升降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錢潢은 方義를 설명함에 있어서 命門相火의 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溫補學派의 관점의 영향을 받아 桂를 肉桂로 보기도 했으며, 病機 설명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錢潢은 方劑의 命名에 기인하여 약물 구성에서 빠진 약물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水氣가 있는 경우 病機 해석에 있어서 『素問』을 인용하여 腎 외에도 肺胃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실제 약물의 작용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허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錢潢의 『內經』 인용의 예시문을 통해서는 몇 가지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첫째, 錢潢이 『傷寒論』의 질병 病機에 맞게 『內經』을 적절하게 인용한 경우가 있었고, 둘째 단어가 같다는 이유로 『內經』의 문장을 인용하였으나, 『內經』내에서의 상황과 『傷寒論』의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셋째, 앞선 주석가들의 『內經』 인용의 잘못됨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

IV. 結 論

以上에서 錢潢과 그의 저서 『傷寒溯源集』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錢潢의 生涯와 著書 및 師承關係 연구를 통하여 錢潢은 정확한 생몰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몇 가지 단서를 통해 생몰연대를 추정해 본 결과, 대략 淸나라 初期 인물로 1627여년 경에 태어나 1708년 『傷寒溯源集』이 출간된 이후에 죽었다는 것과 錢潢의 저서 중 『素問』 20篇에 대한 註釋書는 錢潢이 經典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20篇에 대한 註釋을 하겠다는 계획만 세우고서 실제로는 5篇만 註釋을 하고, 간행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錢潢의 스승이 누구인지는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太陽病篇의 編制를 三綱鼎立을 기준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아 方有執과 喻嘉言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삼아 『傷寒論』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에 대한 註釋書를 출판했다고 생각한다.

2. 『傷寒溯源集』의 구성 형식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編制의 전반적인 짜임새를 통해 錢潢이 앞선 註釋家인 方有執과 喻嘉言의 영향을 받아서 三綱鼎立을 중심으로 몇몇 부분의 編制를 구성한 측면이 있지만, 이들과 달리 한편으로 錢潢은 『傷寒論』의 조문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정리함에 있어서 錯簡重訂派인 方有執과 喻嘉言의 조문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때로는 原因을 중심으로 조문들을 분류하고 때로는 治法을 중심으로 조문들을 분류하였는데, 이는 錢潢의 辨證施治의 정신과 審證求因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 『傷寒溯源集』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六經體系와 理論에 대한 특징에서는 錢潢이 六經病을 陰陽으로 크게 분류하여 바라보고 있음과 三陰三陽의 개념을 陰陽의 盛衰와 연관지어 설명함과 몇몇 특정 부위에서 나타나는 病證을 해당 經脈의 유주노선과 연관지어 설명했음과 傳經 혹은 直中과 대비되는 六經自受說을 주장한 것은 질병의 病機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錢潢의 엄밀한 태도와 病機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傷寒溯源集』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辨誤를 통하여 錢潢이 『傷寒論』 조문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고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황 속에서 파악하려고 했으며, 한 구절 한 구절을 매우 세심하게 파악하여 임상 실제와 연결하려고 했고, 註釋家들의 글을 볼 때 단면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前後의 脈絡을 살펴서 판단하려고 한 점을 알 수 있었다.

5. 『傷寒溯源集』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몇몇 특징적인 方義를 통하여 錢潢이 질병의 상황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쓰거나 病機를 1차원적인 각도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고 있음과 溫補學派의인 관점에서 구성 약물과 病機를 해석하고 있음과 方劑의 命名에 기인하여 약물 구성에서 빠진 약물들을 도출해 넘과 病機 해석에 있어서 『內經』을 인용하여 病機 해석을 풍부하게 하려고 했으나, 실제 약물의 작용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허점을 드러냄을 알 수 있었다.

6. 『傷寒溯源集』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黃帝內經』 이론과의 관계 고찰을 통하여 錢潢의 『黃帝內經』 인용의 몇 가지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錢潢이 『傷寒論』에 나타난 病證에 대하여 病機에 들어맞게 『內經』을 적절하게 인용한 경우가 있었고, 둘째, 단어가 단지 같다는 이유로 『內經』의 문장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內經』 原文內에서의 상황과 『傷寒論』 病證의 상황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셋째, 앞선 註釋家들이 註釋을 함에 있어서 『內經』을 무분별하게 인용한 점에 대해 그 잘못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

7. 1708년에 간행된 『傷寒溯源集』을 인물 소개, 서지학적 연구 및 구성 형식과 내용적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錢潢의 『傷寒溯源集』은 六經體系와 理論에 대하여 六經을 陰陽으로 大別하여 바라보고, 三陰三陽의 개념을 陰陽의 盛衰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傳經 혹은 直中과 대비되는 六經自受說 등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辨誤

를 두어 기존 註釋家들이 써놓은 註釋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쳐 그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고, 方義를 통해 處方의 含意와 病機를 다양하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풀어 나갔으며, 『傷寒論』의 근원을 『黃帝內經』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상호간의 연관성 속에서 살피려 한 점과 『傷寒論』 조문을 方有執이나 喻嘉言과 마찬가지로 三綱鼎立을 기준으로 구성하면서도 病因과 治法에 따라 분류하여 辨證施治의 정신과 審證求因의 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하여 『傷寒論』 註釋書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책이라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1. Qian H. Shanghansuyuanji. Shanghai. Shanghaiweishengchubanshe. 1957.
錢潢 著. 傷寒溯源集. 上海. 上海衛生出版社. 1957.
2. Qian H. Zhou XB, Chen JW annot.. Shanghansuyuanji. Beijing. Xueyuanchubanshe. 2009.
錢潢 著. 周憲賓, 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3. Xuxiusikuquanshu Bianzuanweiyuanhui ed., Gu TL chiefly ed.. Chongbianzhangzhongjing shanghanlunzhengzhifamingsuyuanji (Xuxiusikuquanshu v.986.). Shanghai. Shanghaiyujichubanshe. 2002.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4. Xuxiusikuquanshu Bianzuanweiyuanhui ed., Gu TL chiefly ed.. Chongbianzhangzhongjing shanghanlunzhengzhifamingsuyuanji (Xuxiusikuquanshu v.987.). Shanghai. Shanghaiyujichubanshe. 2002.
顧廷龍 主編.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v.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5. Chen DS, Ceng Y, Huang ZD ed.. Maeng UJ, et al. trans.. Theories of Different

- Schools. Seoul. Daesung Publishing Company. 2001.
陳大舜, 曾勇, 黃政德 編. 孟雄在 의 9人 譯.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6. Yin CL ed. and trans.. Theories of Different Schools of Korean and Chinese Medicine. Daejeon. Jumin. 2006.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주민출판사. 2006.
 7. Yin XM. ShanghanWenbing Brief History. Daejeon. Jumin. 2007.
殷哲玟 著. 傷寒溫病學史略. 대전. 주민출판사. 2007.
 8. Wang Q ed.. Shanghanlunyanjiu. Guangzhou. Guangdonggaodengjiaoyu chubanshe. 1988.
王琦 主編. 傷寒論研究.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88.
 9. Zhongguoyijidacidian Bianzuanweiyuanhui ed.. Zhongguoyijidacidian. Shanghai. Shanghai kexuejishuchubanshe. 2002.
中國醫籍大辭典 編纂委員會 編.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10. Yan SY ed.. Zhongguoyijitongkao. Shanghai. Shanghai zhongyixueyuan chubanshe. 1992.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2.
 11.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gong 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2. Liu A original work. Gao Y annot.. Huainanzizhu(Zhuzijicheng 7). Shanghai. Shanghai shudian chubanshe. 1986.
劉安 著, 高誘 注. 淮南子 注(諸子集成 7).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86.
 13. Zhang ZJ. Zhujieshanghanlu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4.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4. Fang YZ ed.. Chen JW annot.. Shanghanluntiaobian. Beijing. Xueyuanchubanshe. 2009.
方有執 編著. 陳居偉 校注. 傷寒論條辨. 北京. 學苑出版社. 2009.
 15. Shen MN. Assessment of Academic Thought of Shanghansuyuanji. Zhongyizazhi. 1981. 11.
沈敏南. 試評『傷寒溯源集』的學術思想. 中醫雜誌. 1981. 11.
 16. Xie ZL, et al.. Debate on Shanghansuyuanji Several Problem. Zhongyixuebao. 2014. 29(191).
謝忠禮 外 4人. 『傷寒溯源集』若干問題探討. 中醫學報. 2014. 29(191).
 17. Wan XG. A Brief History of Shanghan Academic Development. Guangzhou zhongyiyadaxue. Doctoral dissertation. 2001.
萬曉剛. 傷寒學術發展史略. 廣州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1.
 18. Ma JJ. Discuss Yushan school in Ming and Qing Dynasty. Zhongguozhongyiji chuyixueazhi. 2015. 21(11).
馬俊杰. 論明清時期虞山醫派.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5. 21(11).
 19. Huang YJ. A Study on School of doctors in Wumen. Master's thesis in Nanjingzhongyiyadaxue. 2012.
黃亞俊. 吳門醫家學術流派研究. 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20. Kim IS. Review of literatures on Chuan Bian of 6-Jing disease. Master's thesis in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1992.

金仁碩. 六經病의 傳變에 關한 文獻的 연구.
慶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21. Qian H. Chongbianzhangzhongjing shanghanlunzhengzhifamingsuyuanji. Kyoto. 1803. [cited 2017 Jan 15] Available from: URL: <https://www.library.pref.osaka.jp/licsxp-opac/WOpacTifTilListToTifTilDetailAction.do?urlNotFlag=1>

錢潢.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 京都. 1803. 大阪府立図書館 검색.